

성경 공과

제4권

기초 2반 (Basic Class 2)



유월절 어린 양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번역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4권

Basic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4권 제2반, junior class만을 가지고 기초2반, Basic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서 이야기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 (the WORD)은 세 겹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글자는 그릇의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성서 글자를 통해서 발휘되며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을 뵈는 것은 성서 글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마태복음 24장 30절).

중요한 것은 성서를 읽되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야의 권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장).

더욱이 성서 본문을 읽고 해설을 정독한다면 엘리사가 요구한 두 뿔의 영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14절).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제 4권 차례

*** 이 책에 관하여

1. 창조(이렛 날)---창세기 2장 1-7절-----9
2.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1-5절-----13
3. 바벨탑 이야기-----창세기 11장 1-9절---18
4. 아브라함과 천사들---창세기 18장---22
5. 이사악과 아비말렉----창세기 26장 1-33절---27
6. 야곱의 귀향-----창세기 35장-----31
7. 요셉의 아들들--창세기 48장, 50장 22-26절---35
8. 과월절-----출애굽기 12장---40
9.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7장--46
10. 금 송아지----출애굽기 32장 1-24절----49
11. 아론의 가지----민수기 17장 16-28절---54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여호수아 5장---58
13. 거룩한 땅의 분할--여호수아 18장 1-10절---63
14. 판관 삼손-----판관기 14장-----66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사무엘상 8장-----71
16.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사무엘상 15장-----75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사무엘하 12장 1-25절---81
18. 솔로몬의 최후--열왕기상 11장 1-13, 26-43절---86
19. 엘리사와 나아만---열왕기하 5장----91
20. 시드키야와 예레--열하24장,25:1-12;예야 21장--96
21. 말씀에 관한 시편----시편 119편-----102
22. 벨사살 왕의 잔치-----다니엘 5장-----118
23. 사자굴에서의 다니엘---다니엘 6장---123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즈가리아 4장--129
25. 요나와 아주까리(박녕쿨)--요나 3,4장--133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요한복음 1장--138
27. 가나에서의 기적-----요한복음 2장 1-11절--144
28. 주님과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 1-21절--149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요한복음 4장 1-42절-- 153
30. 베짜타 못-----요한복음 5장 1-16절---159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요한복음 9장---164
32. 선한 목자-----요한복음 10장----170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복음 11장 1-46절---175
34. 종려주일(4)-----요한복음 12장 12-50절---181
35.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187
36. 부활절(4)---요한복음 20장---191
37. 여자와 용-----요한 계시록 12장---197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요한 계시록 13장, 19장 11-21절---201
39. 요한의 환상의 끝--요한 계시록 22장 8-21절--207
40. 새 교회의 날---요한 계시록 21장 1-12절---211

1

창조 - 이렛날

머리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계의 창조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을 강조하면서 육일간의 창조를 재조명한 후 이렛날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1-7절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5.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6.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7.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하여 기억을 재고해 보자.

- * 우리는 성경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 *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인가?
- *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 이 책은 크게 무엇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가?

- * 성서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왜 성경의 첫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는가?
- * 창조는 며칠 동안 있었는가?
- * 몇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는가?
- * 마지막 창조는 무엇이었는가?
- *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 * 사람은 무엇을 지배하게 되었나?
- * 주님께서서는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쉬고 잠을 자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지루한 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즐거움을 잃게 되며 결국 우리의 육체마저 헐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에게 정기적인 휴식과 변화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렛날을 쉬는 날로 정하시고 다른 날에서 따로 떼어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만든 창조물을 위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대해 토요일이 주님께서 따로 떼어 두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시하는 사항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사람에게 처음 주신 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지금의 달력상의 요일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일은 일하는 날이요 하루는 거룩한 날로서 쉬는 날로 규정하셨을 뿐이기 때문이다. 단어 안식일은 영어로 Sabbath라고 쓰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쉼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로서 토요일을 지켜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즉 달력에서의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며, 그 날에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 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토론이 되는 까닭은 주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신 이 날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 성별함 또는 거룩한 날로 정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Sanctified란 “거룩하게 만듦”이라는 뜻을 먼저 인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신약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것들에 관하여 바리사이파인들과 그분의 견해가 달랐다는 것과 그분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과 같이 우리는 교회와 성경공부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마땅히 도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는 주일에 우리의 친구나 이웃과 같이 먹고 같이 걸으며 대화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1-8절을 읽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반적인 법을 주고 계시며, 주일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안식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다. 우리의 영혼에게는 이렇게 쉼이 있는 날이 매우 필요하다. 그 이유는 여기서의 쉼이란 욕일 내내 자신의 욕구를 채워 보려는 이기심과의 투쟁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날로 되어져가야만 한다. 그 이유는 모든 행복이 바로 이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한 마음은 주님에게서 문을 닫게 되어 그분의 사랑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그 마음이 행복해질 수 없음이 당연하다. 주일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날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 많이 배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가?
- 2)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성경의 첫 권은 무엇인가?
- 4) 창세기란 무슨 뜻인가?

- 5)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6) 창조 첫날에 무엇이 세상에 주어졌는가?
- 7) 몇 일만에 창조가 완료되었는가?
- 8) 본문 속의 “날, day”은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같은가?
- 9) 주님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0)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11) 인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 12) 창조가 끝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14) 그분은 이렛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가?
- 15) “복 있다”란 어떤 뜻인가?
- 16)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 17) 그분 스스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하느님 3) 창세기 4) 시작 5) 한 처음에... 6) 빛 7) 6일
- 8) 아니다 9) 사람 10) 하느님의 모습 11) 모든 땅 12) 참 좋았다 13) 쉬셨다
- 14)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15) 행복하게 만듭 16)선
- 17) 예배드리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친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심

2

카인과 아벨

머리말

에덴의 동산을 재고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장 1-15절

4장: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2.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5.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6.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7.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8.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피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12.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4.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 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5.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해설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임을 알고 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람답고 열매가 풍성한 동산을 통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첫 교회, 즉 태고 교회인들의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마음 상태를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것을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게 되는 곤경은 아담과 이브처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서 시작된다. 그 결과 우리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선생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 불순종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생을 “어려운 길”로 해서 배워가게 된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을 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 난 뒤 그들은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가졌다.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주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으니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그 이유는 카인과 아벨이 바친 두개의 제물은 각기 달랐지만 각자가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각 제물이 실제로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차후 더 공부하기로 하자. 성경은 두 제물의 차이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카인의 제물을 주님께서 거절하셨던 이유도 설명되고 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본문에서 카인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 또한 엿볼 수 있다.

간혹 우리는 선한 척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카인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척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기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께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은 주님의 호의를 사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요즈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주님을 사랑함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마음에 없으면서 막연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일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일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카인처럼 명예를 얻거나 남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카인이 아우에게 달려들어 쳐 죽였듯이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타인을 다치게 하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한다. 카인의 인격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과거 아담과 이브가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에 따르기로 선택할 때 취했던 잘못된 자세가 조금 더 나쁜 쪽으로 진전된 것이다. 카인은 주님도 사랑해야 하고 아우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카인이 당연히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돕는 사람이었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랑도 갖지 않은 채 그분을 신뢰한다는 식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의 문제점을 묘사하고 있다. 사랑과 믿음은 형제이고 둘은 공존하며 함께 일해야만 한다. 사랑과 믿음 중 어느 한쪽이라도 파괴되면 불행이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카인은 아우를 죽인 벌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공포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정착하여 고향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기적이며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불행을 마음 깊은 곳에 지니고 있다. 설사 그들이 세상에서 눈에 띄게 변영하는 듯 보여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주님은 카인이 살해됨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는 카인이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실상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속의 이기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되돌아 설 기회도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것을 행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에제키엘서 18장 23절을 읽고 본 반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에텐의 동산과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세상은 며칠 동안 혹은 몇 단계로 창조되었는가?
- * 창조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 *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 인간은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창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인가?
- *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따로 떼어 놓으셨는가?
- *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 * 안식일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규율을 주셨는가?
- * 에덴의 동산에서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가?
- * 에덴의 동산의 강은 몇 줄기로 나뉘었는가?
- *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는가?
- * 주님은 두 번째 나무에 대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 누가 주님께 불순종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꾀었는가?
- *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는가?
- *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누가 형인가?
- * 형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동생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카인은 어떤 제물을 주님께 드렸는가?
- *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 * 주님은 어떤 제물을 받기셨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 2) 이 창조는 며칠(단계)에 있어졌는가?
- 3)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4)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5) 이렛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는 무슨 뜻인가?
- 7) 이렛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
- 8)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지상의 첫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그리는가?
- 9)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
- 10) 그들을 불순종하게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
- 11) 불순종의 벌은 무엇인가?
- 12)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3) 카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 14)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그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16) 누구의 예물을 반기셨는가?
- 17) 카인의 예물은 왜 거절되었는가?
- 18) 카인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 행동은 무엇인가?
- 19) 그의 벌은 무엇인가?
- 20) 주님은 카인이 파괴됨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6 3) 사람 4) 쉬셨다 5)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라
- 6) 행복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7)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 예배드리는 날
- 8) 에덴 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0) 뱀 11) 동산에서 추방
- 12) 카인, 아벨 13) 농부 14) 목자 15) 곡식, 새끼 양 16) 아벨의 예물
- 17) 불성실 때문에 18) 아벨을 죽였다 19) 방황자 20) 표를 찍어 주셨다

3

바벨탑 이야기

머리말

노아와 홍수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서론으로 삼는다. 홍수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있게 된 인과응보였다는 것과 창조한 인류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노아의 구원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만과 우둔함으로 인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11장: 1.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2.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만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3.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테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6.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7.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8.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 두었다. 9.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해설

성경은 최초의 사람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 버린 뒤 점점 더 악해져 갔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엿볼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주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태초 사람들의 이기심과 거짓사상은 너무나 커져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키운 악으로 인해 파멸되고 말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붙잡혀 사형을 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고교회의 파멸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로 그려진 것이다. 우리가 홍수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다소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또 다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음을 망각해 버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든 지혜와 공적을 스스로에게 돌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꽤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같이 이기심이라는 거인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에 의해서도 천국에 도달하여 하느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처럼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우둔하여서 결국 또 다른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 시키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탑을 쌓을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한국어만 할 수 있는 한국 사람과 영어만 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일의 진행이 힘든 것과도 같다. 물론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더라도 진행이 잘 안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문제이지 의사소통의 문제는 아니다. 바벨탑의 이야기에서처럼 언어가 혼동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마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듯 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끼리 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언어적 장벽이 있는 것 보다 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들이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언어가 혼동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인간의 언어가 혼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오만함이 극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덴의 동산 이야기로 묘사된 사람들은 지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교회이자 가장 위대한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교회를 태고교회라고 부른다. 노아의 이야기로 묘사된 사람들은 태고교회를 잇는 두 번째 교회였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고대교회라고 부른다. 고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교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유대교나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종교들, 특히 이슬람교는 이 고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종파의 한 가닥인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아담과 이브의 첫 두 아들은 누구누구였는가?
- * 카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아벨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 * 카인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 * 주님은 왜 카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는가?
- * 카인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 * 카인의 악행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은 카인이 파멸됨으로부터 어떻게 그를 구해 주셨는가?
- * 카인과 아벨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 * 홍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 * 노아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온 후 어떤 징조가 그에게 주어졌는가?
- *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 *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 사람들은 어디에서 탑을 짓기 시작했는가?
- * 그들이 사용한 건축 재료는 무엇이었는가?
- * 그들은 흙 대신 무엇을 사용했는가?

- * 주님은 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 * 그들은 왜 탑 쌓는 일을 멈추어야 했는가?
- * 그들이 쌓은 탑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바벨”이란 어떤 의미인가?
- * 언어가 뒤섞여진 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 2)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3)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4) 왜 카인의 예물은 거절되었는가?
- 5) 어떻게 주님은 카인을 보존하셨는가?
- 6)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는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 8) 그들은 무엇을 짓기로 했는가?
- 9)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는가?
- 11) 주님은 그 건축을 어떻게 멈추도록 하셨는가?
- 12)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본문은 어떤 교회의 종말을 묘사하는가?
- 14) 이 탑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 15) 성경에서 그리스어의 어떤 말이 히브리어의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갖는가?

질문의 답

- 1)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2) 농부, 목자 3) 곡식, 새끼 양 4) 불성실, 위선적이었다 5) 인(mark) 6) 동쪽으로부터 7) 시날(바빌론) 8) 탑 9) 하늘까지 닿기 위해

- 10) 벽돌과 역청 11) 언어를 뒤섞으셨다 12) 흠어졌다 13) 고대교회 14) 바벨
15) 바빌론 16)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건설함 17) 지각, 양심

4

아브라함과 천사들

머리말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 보면서 본과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님의 방향에 맞추려는 아브라함의 바램과 바벨탑 이야기에서의 사람들의 바램을 비교해 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8장

18장: 1.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2.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 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3.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4.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5. 떡도 가져 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6.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7.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8.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 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12.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하고 중얼거렸다. 13.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고 웃으니, 될 말이나? 14.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15.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뵈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16.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17.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19.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20.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21.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22.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24.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25.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26.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채만도 못한 주체에 감히 아뢰입니다. 28.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십 오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0.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자 31. 그가 또 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하고 대답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3.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해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가 없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아브람(아브라함의 원래 이름)과 그의 가족은 사실 선조들로 인해 하느님과 종교에 대하여 아주 나쁜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기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아브람에게 딸려 있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가지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아브람은 헤브론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때로 마므레라고도 불렸다. 여기서 주님은 아브람과 다시 약속하셨는데, 그 표시로 아브람(Abram)의 이름을 아브라함(Abraham)으로 해 주셨고 사래(Sarai)의 이름을 사라(Sarah)로 바꾸어 주셨다. 그들의 이름에 더하여진 철자 “h”는 주님의 이름인 “Jehovah”의 h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들이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표시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본문의 첫 절에 등장하는 지역 이름 마므레(Mamre)는 헤브론(Hebron)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성서 지도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성들은 룻이 그의 정착지로 선택했던 평야에 있었다. 룻은 그곳에 살면서 곤경을 치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악한 성에 너무 가까이 붙어살았기 때문이다. 한 때 룻과 그의 가족은 왕들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성들은 그 사악함이 극에 달해서 파멸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야 만 것이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언급하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은 주님이 친절하시며 자비로우셔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선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그것이 있기만 하면 도우실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의 탓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온전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면 그분께서도 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더하며 더욱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분께서 더 많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지상의 첫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 * 성경은 이 교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 *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부르는가?
- * 두 번째 교회 속에서 발달된 심각한 과오는 무엇인가?
- * 이러한 교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성경에서 이 일이 어떤 이야기로 기술되어 있는가?
- * 누가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 했는가?
- *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제공했는가?
- *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무엇을 하도록 했는가?
- *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제공했는가?
- * 천사들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는가?
- * 사라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 * 소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주님께 무엇을 건의했는가?
- * 아브라함이 언급한 숫자들의 순서는 어떠한가?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의 첫 고향은 어디인가?
- 2)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3) 그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인가?
- 4)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왔는가?
- 5)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6) 사실 그들은 누구인가?
- 7)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는가?
- 8) 왜 사라는 웃었는가?
- 9)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 10)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는가?
- 11) 아브라함이 주님께 묻은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3) 아브라함은 몇 개의 질문을 물었는가?
- 14) 주님은 그 때마다 어떻게 답하셨는가?
- 15) 아브라함이 언급한 가장 작은 숫자는 몇 명인가?

질문의 답

- 1) 우르 2)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3) 헤브론(마므레) 4) 세 명
- 5) 귀중한 손님 대접 6) 천사들 7)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8)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의심했다 9) 소돔 10) 성을 멸하려고 11) 선한 이를 나쁜 자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 12) 만약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13) -5, 40, 30, 20, 10 (다섯 질문)
- 14)...하다면 멸하지 않겠다 15) 10

이삭과 아비멜렉

머리말

이삭의 출생과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먼저 살펴면서 공부를 진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6장 1-33절

26장: 1.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2.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고 3. 그 땅에 몸 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피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4.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붙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 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6.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7. 그 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8. 이삭이 그 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9. 이삭을 불러 들여 나무랬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10. 아비멜렉은 “어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11.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 이사악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15.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사악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팠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 한편 아비멜렉은 이사악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 나가라”고 하였다. 17. 이사악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18.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사악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사악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켈쥬 솟는 샘 줄기를 찾았다, 20.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악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23. 그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 갔는데, 24. 그 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심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25.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 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26.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사악을 찾아 왔다. 27. 이사악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29.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 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30. 이사악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31.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32. 바로 그 날 이사악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 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33. 이사악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해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그는 근처의 왕들과 동맹을 맺었고, 좋은 초지와 풍부한 우물들을 발견하여 자신의 가축 떼를 번성시켰다. 마침내 이삭이 그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안 것같이 이삭을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그리 대단치 않은 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어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흉년이 있지만 주님은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창세기 21장 22-32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아비멜렉(Abimelech)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왕의 선조”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블레셋 왕들의 전 계보를 통칭하는 말로 사료된다. 그래서 과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듯이 지금의 이삭도 그렇게 했다. 세바란 “맹세”라는 뜻이고, 브엘이란 “우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이제 성서지도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블레셋(Philistine)의 영토를 찾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차후 이 블레셋에 관계되는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게 될 것이다. 지도에서 브엘세바도 확인해 보자. 이곳은 거룩한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서 지도의 가장 북쪽은 단이다. 따라서 성서에서 간혹 읽게 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거룩한 땅의 전 영토를 의미한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과거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이삭은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는가?

- * 당시 블레셋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삭은 리브가에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 * 이삭은 블레셋 영토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 * 아브라함이 그곳에 파놓은 우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가라고 했는가?
- * 왜 이사악은 자기 종들이 파 놓은 두개의 샘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우물을 발견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 * 이삭과 아비멜렉은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 이삭은 그 합의를 이룬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사악의 아내는 누구인가?
- 3) 이 아내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 4) 이사악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5) 주님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어디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 6) 그 대신 이삭은 어디로 갔는가?
- 7)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가?
- 8) 그는 이삭을 환영했는가?
- 9) 누가 과거 블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는가?
- 10) 블레셋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가?
- 11)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의 몇 개를 못 쓰도록 방해했는가?
- 12) 이사악은 그들과 다투었는가?
- 13) 아비멜렉은 결국 이사악과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14)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 15) 브엘세바란 무슨 뜻인가?

질문의 답

- 1) 이사악 2) 리브가 3) 하란 4) 에사오와 야곱 5) 이집트
- 6) 그랄 지방 7) 아비멜렉 8) 환영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두려워했다
- 9) 아브라함 10)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 11) 두개 12) 다투지 않았다
- 13) 평화의 맹세 14) 브엘세바 15) 맹세의 우물

6

야곱의 귀향

머리말

야곱의 출생이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5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어 읽은 후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5장

35장: 1.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 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형 에사오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2.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3.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4.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물었다. 5.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자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6.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느님께서 그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8.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알론바굿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9.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20.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11. 하느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12.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13. 하느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가는 도중,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17.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18.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19.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달에텔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다.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블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27.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랏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28. 이사악은 백 팔십 세나 살았다. 29. 이사악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에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해설

야곱은 하란에서 삼촌인 라반의 환영을 받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라반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부다처가 잘못된 것임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레아로부터 여섯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고, 라헬과 레아의 몸종인 빌하와 질바로부터도 네 아들을 낳았으며,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그 후 야곱은 가나안 땅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때는 하란에 온지 이 십 여년이 지난 후였다. 그는 여전히 에사오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막상 에사오를 만나자 이미 오래 전 동생인 그를 용서했고 기쁘게 환영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나섰을 때 베델에서 그가 꾸었던 경이로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즉, 지상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와 그 꼭대기에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다. 창세기 28장 16-22절을 보면 야곱이 주님께 서약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베델이란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다. 그리고 본문은 야곱이 이 서약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아들로써 열두 번째에 해당된다. 본문 23-26절을 보면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이름들에 친숙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후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요셉과 베냐민이 열 두 아들 중 마지막에 해당되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삭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는데, 그곳은 과거 사라가 죽었을 때 가문의 묘지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둔 땅이다.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우리는 세 열조들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르셨는가?
- * 야곱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 * 누가 베델에서 죽었는가?
- * 주님은 야곱에게 어떤 다른 이름을 주셨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 * 누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는가?
- * 누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는가?
- * 누가 수 백 년 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 *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어디서 살고 있음을 발견했는가?
- * 그가 죽었을 때 누가 이삭을 안장했는가?

질문 정리

- 1)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 2)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 3) 그가 결혼한 두 여자는 누구인가?
- 4) 하란에서 몇 명의 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는가?
- 5)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렸는가?
- 6) 열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7)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 8)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 9) 그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 멈춘 장소는 어디인가?
- 10) 야곱은 세겟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11) 누가 베델에 이미 묻혀 있었는가?
- 12)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 1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 14) 야곱은 이사악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15) 야곱과 에사오는 어디에 이사악을 안장했는가?

질문의 답

- 1)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2) 20여 년 3) 레아, 라헬 4) 11명

- 5) 요셉 6) 베들레헴 근처 7) 베냐민 8) 세겜
- 9) 남의 나라 신들과 귀걸이를 버려라 11) 드보라
- 12) 돌로 제단을 쌓았다 13) 큰 국가의 선조가 되게 하리라
- 14) 헤브론(마므레) 15) 막벨라 동굴

7

요셉의 아들들

머리말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조명 한 후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48장: 1. 이런 일이 있던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2.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3.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4.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5.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향렬에 들어야 한다. 6.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7. 내가 바탄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 채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미를 묻었다.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이 누구냐?” 9.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이 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 오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11.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 구나.”

12. 요셉은 자기의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13.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 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나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 손 쪽에 가까이 가게 했다. 14.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15.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을 므나세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 했다. 18.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자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슬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20.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나세처럼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나세보다 앞세웠다.

21.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22. 내 갈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겜 하나만는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50장: 22. 그 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백 십 세가 되었다. 23.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나쎄의 아들 마길의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향렬에 들였다. 24.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마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25.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26.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해설

주님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돌보셨다. 그 이유는 그가 선했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매사를 잘 처리해서 위대한 인물, 즉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통치자가 되었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도록 결코 내버려두시지 않으심을 알아야 한다. 야곱은 큰 흉년이 들자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양식을 사오도록 이집트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위대한 통치자가 과거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한 동생 요셉임을 알고는 벌벌 떨었다.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용서해 주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4-11절에 담겨 있다. 이리하여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지극히 아끼던 터라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땅 삼각지인 고센을 거처로 배려해 주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축복이 언제나 주님께 의하여 영감 됨으로서 그 성취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경우에도 마땅히 형 에사오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가로챘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이 가로챈 축복 역시 그 안에 더 큰 것을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허락된 것이다. 본문에서의 야곱은 과거 그의 아버지가 속아서 잘못 행한 축복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두 축복이 갖는 내적인 이유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안의 모든 것이

말씀 내부에 깊은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뤄진 지파들 사이에서 요셉지파는 없어지는 대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나쎄 지파로 불리는 두 지파가 있게 됨을 배운다(* 그러나 계시록 7장 8절의 경우 요셉지파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야곱은 요셉의 상속분에 특별한 몫을 더해 주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요한복음 4장 5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고, 그의 시신은 썩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이집트인들은 향과 소금을 사용하여 길고 가느다란 천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신을 싸서 보존했다. 이렇게 취급된 시체의 일부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히 보존된 채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을 미이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미이라를 만드는 이 비밀스런 방법을 잃어 버렸다. 이리하여 야곱의 후손들은 매장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 칠십 일 동안 곡을 했다. 야곱의 후손들은 그의 시신을 거룩한 땅으로 옮겨서 막벨라 동굴에 안장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이미 안장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정착했다. 요셉은 후에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이장할 것이라고 유언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과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알 수 있다. 요셉의 시신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지 않았지만, 과거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특별히 선물한 장소에 매장되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 누가 형인가?
- * 왜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들을 데려 왔는가?
- *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누가 맏아들인가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했는가?
- *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 * 요셉이 야곱의 손을 움직이려 했을 때 야곱은 뭐라고 말했는가?
- *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는가?
- * 요셉의 임종 직전 그는 어떤 약속을 일가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는가?
- * 가족들은 요셉의 시신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질문 정리

- 1) 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3) 이집트에서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은 누구인가?
- 4) 요셉의 큰아들은 누구인가?
- 5) 왜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을 데려 왔는가?
- 6)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축복 받아야 한다고 예상했는가?
- 7) 야곱은 누구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 8) 야곱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셉의 아들에게 내렸는가?
- 9) 야곱은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 10) 그 매장지에는 야곱 외에 누가 더 매장되어 있었는가?
- 11) 요셉은 죽을 때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가?
- 12)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기근 2) 먹을 것과 집을 제공했다 3) 므나세, 에브라임 4) 므나세
- 5) 축복 받기 위해 6) 므나세 7) 에브라임 8)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 9) 막벨라 동굴 10) 아브라함, 사라, 이사악, 리브가, 레아
- 11)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 12) 미이라

과 월 절

머리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변화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과 과월절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2장

12장: 1.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3.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4.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5.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6. 너희는 이 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7.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9.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12. 그 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만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13.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14.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15. 너희는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16.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칠 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 날에는 그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7.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18. 정월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9. 칠 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 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20. 누룩이 든 것은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잡으시오. 22. 우슬초뭉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문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 23.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오. 24.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25. 당신들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26.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27. 이것은 야훼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 주시오.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 주신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28.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9.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30.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31.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 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

라. 32.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나오.”

33.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다. 34.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36.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37.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쪽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육십 만 가량이 되었다. 38.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39.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것은 사백 삼십 년 동안이었다. 41. 마침내 사백 삼십 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에 야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 나왔다. 42. 그 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43.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43.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45. 머슴이나 몸 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46.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47.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과월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48. 너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서 야훼께 과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49.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50.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51. 바로 이날에 야훼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해설

성경의 두 번째 책의 이름은 출애굽기이다. 출애굽이란 히브리어로 “나감”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 요셉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관하여 말해준다. 요셉이 죽은 후 거의 이백년이 지나서까지도 이 예언은 성취 되지 않았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참고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되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문 2절에서는 과월절의 사건이 아주 중요해서 주님께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달력을 바꾸도록 하셔서 과월절이 있는 달을 그들 종교력의 첫 달로 삼으라고 분부하고 계신다. 이 달은 실제로는 봄철에 속한다. 히브리인들의 달(months)은 달(moon)의 변화에 의해 규율되는데, 오늘날의 달력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첫 달은 일반적인 태양력의 3월에 시작되거나 4월 초에도 있게 된다. 주님은 세월이 많이 지난 뒤 유대인의 과월절 기념주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이 과월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로 부활절이 태양력으로는 매 해 같은 달의 같은 날에 오지 않는 것이다.

과월절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해 열 번째 재앙을 피하도록 해준 날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날, 즉 그날 밤에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던 날이기도 하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떠남을 매우 기뻐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금이나 은 또는 의복 등을 기꺼이 내주었다. 이들이 내 준 물건들은 달리 보면 빌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성막을 건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었다.

창세기 46장 26-27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알려준다. 본문 40절에서는 이 후손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머물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때로부터 계산된 것으로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체류기간만 계산한다면 약 25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월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그 절기가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자주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문에서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절기를 매 해마다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절기 대신 새로운 축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축제는 다름 아닌 주님의 성만찬이다. 이 축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과월절의 기념을 가지신 때에 제정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도 불리신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상기하기 위해서 과월절을 기념한다. 우리가 성만찬을 가지는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서 사심으로써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왜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 *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 * 모세와 아론은 몇 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는가?
- *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 *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 * 왜 이 축제를 과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게?
- * 이 축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는가?
- *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먹었는가?
- *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얼마나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누가 이 후손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세워졌는가?
- 3) 무엇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 후손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는가?
- 4) 몇 개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는가?
- 5)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6) 장자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후손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 7) 이집트인들은 이 후손들이 빠져나가는데 무엇까지 제공했는가?
- 8) 이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무슨 축제를 가졌는가?
- 9) 왜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 10)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11) 그 고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었는가?
- 12)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차림으로 먹었는가?
- 13) 먹고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 14)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후손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 15)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상했는가?
- 16) 이 축제는 일 년에 몇 번 준수되었는가?
- 17) 기독인은 과월절 대신 어떤 축제를 지키는가?
- 18) 이 축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노예가 되었다 2) 모세 3) 재앙 4) 10 5)장자가 죽는 재앙
- 6)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7) 금, 은, 의복 8) 과월절
- 9)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10) 불에 구웠다
- 11)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 12)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 13) 불에 살랐다 14) 60만 15) 노예로부터의 해방
- 16) 매해 한 번씩 영원히 17) 성만찬
- 18) 예수님께서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출애굽기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인 홍해를 건넜던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 엘림에서의 휴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한다.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17장

17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썩 썩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2.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하고 말했지만, 3.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4.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6. 내가 호렘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트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싸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8.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 가 있었다. 11.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13.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14. 아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15. 모세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아훼 니씨라고 이름을 붙이고 16. “아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아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하고 외쳤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지나간 여정을 성서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마라에서 일단 멈춘 후 주님이 그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도록 해주셨고 열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그들이 휴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제 16장은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불리는 기적적인 양식이 공급되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양식은 광야생활 40여 년 동안 매일 공급되었다.

그 이후가 바로 본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가를 떠나 시나이 산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쪽에 산이 있는 좁은 계곡을 통과해 가고 있었다. 이 계곡은 홍수기에는 급류가 흘러내렸으나 본문에서는 메마른 상태이다.

성경에서는 시나이 광야에 있는 산맥중의 봉우리 하나를 호렙 또는 시나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통상 시나이 산을 계명이 주어진 산봉우리로서 연상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광야 여정에서의 첫 전투를 가져야만 했다. 아말렉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종종 언급된다. 아말렉이란 단어는 “계곡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들의 전투 공격 수법은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17-18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말렉 사람들은 패배했고, 모세는 르비딤에 제단을 세워서 아말렉족과 싸울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도우실 것임을 기념했다. 아말렉은 세월이 지나 기드온의 지휘 하에 그런 다음

사울의 지휘 아래 그리고 다윗의 지휘 하에서 또 다시 싸워야만 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모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바위가 있는 지역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 누가 이스라엘의 전투 용사를 지휘했는가?
- *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 위에 있었는가?
- * 모세가 그의 팔을 주님께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그가 팔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 * 모세가 지치자 아론과 후르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 2) 무엇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가?
- 3)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명은 무엇인가?
- 4) 그들은 왜 불평했는가?
- 5)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7) 이후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누가 전투를 위해 지도자로 임명되었는가?
- 9)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 10)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에 올라갔는가?
- 11) 모세는 전투 상황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었는가?
- 12) 그가 지치자 누가 그를 도왔는가?

13)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질문의 답

- 1) 홍해가 갈라짐 2) 구름(불)기둥 3) 르비딤 4) 물이 없어서
5) 바위를 치라 6) 물이 솟아났다 7) 아말렉 8) 여호수아 9) 언덕위로 올라갔다
10) 아론과 후르 11) 팔을 들고 있음으로 12) 아론, 후르, 돌 13) 제단

10

금 송 아 지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4장을 읽은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본문까지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산을 오르내렸다. 특별히 24장 18절은 32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산에서 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몇 번씩이나 그분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해왔던 짐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2장 1-24절

32장: 1.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하고 대답하자 3.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 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8.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떠드는구나!” 9.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11.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 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12.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 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야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14.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던 재앙을 거두셨다.

15.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 서서 산에서 내려 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17.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18.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 소리다.”

19.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수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20.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21.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22.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23.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예집트 땅에서 데려내 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24.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해설

시나이 산은 큰 평야에 우뚝 올라 선 큰 바윗덩어리들의 집합체인 듯 보이며, 그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산의 정상은 해발 8-9천 피트정도 된다. 이 산 덩어리들의 길이는 약 2마일이며, 그 폭은 대략 1 마일정도이다. 그 밑에 위치한 평야는 약 2마일정도의 길이와 약 1/2마일정도의 폭을 가지는데, 넓이로 보면 약 400에이커 해당된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기는 경이로울 정도로 맑아서 보거나 듣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십계명은 천둥과 번개와 자욱한 연기로 뒤덮인 시나이 산 꼭대기로부터 주님의 소리로 말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 신명기 5장 22-24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불리어져 스스로 깎아 만든 두 돌 판위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계명을 받도록 명령되었다. 주님은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모든 법, 특히 예배에 관한 법들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성막과 그 속의 가구를 설비하는 것에 따른 지침들도 주셨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단번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산에서 내려왔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를 통해 주신 모든 법에 순종하겠노라고 응답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모세의 시종으로서 동행하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모세를 기다렸다. 이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웠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론과 후르는 모세가 없는 동안 평야에 있는 백성들을 책임지도록 지시되었다. 백성들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산으로 불리어져 구름에 덮인 산꼭대기에서 사십 일간을 주야로

머무르자 그가 영영 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께서 여태껏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경이로움과 그들이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성경공부 중에 마음을 감화시킨 말씀속의 어떤 진리에 젖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약속을 잊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버렸다고 판단되자 아론에게 그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우상들 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아마도 이집트인들의 우상인 송아지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이야말로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으며 실제적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다. 사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실재한다고 믿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이 자연계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실재하심 또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 4절과 2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아론은 모세가 우상에 대해서 꾸짖자 자신이 직접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잘못을 행한 후 그것이 적발되면 일단 발뺌하고 보는 것이다.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매우 화가 났지만, 우선적으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그 후 주님은 모세에게 시나이 산 밑에서 돌 판 둘을 만들어 산꼭대기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새 돌판에 다시 계명을 쓰셨다. 그리고 모세는 새 돌판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다. 이 돌판이 후에 궤 안에 보관 된 돌판이다.

그 다음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분만을 예배하며 우상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파괴해야 한다고 언약하셨다. 또 그들이 거쳐 가는 여정의 길목에 사는 민족들이나 그들의 주변에 섞여 같이 사는 타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모든 작물과 가축의 첫 소산은 주님께 바쳐지도록 명령되었다. 그리고 매해마다 세 가지 축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즉, 과월절(무교절 또는 유월절)과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의 칠칠절(추수절) 그리고 해가 바뀔 때인 가을철 모든 곡식을 안전하게 수확하는 초막절(수장절)이다.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애쓰셨다. 그리고 그들이 위의 조항을 성심껏 준수한다면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의 모든 명령들은 우리의 선함을 위해 주신 것이요, 이 선함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는 성경의 어느 이야기에서 귀걸이에 관하여 공부했는가?(창세기 35:4)
- * 아론은 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 *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 그는 이 돌 판으로 무엇을 했는가?
- * 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 그는 백성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후손은 시나이에서 얼마나 오래 야영했는가?
- 2) 백성들은 주님께서 시나이산 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는가?
- 3) 주님은 그 외의 어떤 지시를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가?
- 4)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5)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 7)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8) 아론은 백성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 9)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10)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11)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자 무엇을 했는가?
- 12) 그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13) 아론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했는가?
- 14) 금송아지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거의 일년 2) 계명 3) 행동 지침의 법, 예배에 관한 사항 4) 산꼭대기
- 5) 40일 6) 영원히 갔다고 7) 신들 8) 금귀고리 9) 송아지 10) 두 돌판
- 11) 돌판을 깨트렸다 12)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 13) 불 속에 금을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14) 세상적 성공과 육의 쾌락을 사랑함

11

아론의 가지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론에 관한 부분인 출애굽기 28장 1-4절과 40-43절을 먼저 읽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의 열 두 스파이, 특히 14장 26-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7장 16-28절

17장: 16. 아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18.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9.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두어라. 20. 내가 택한 사람의 가지에서 싹이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20.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22.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놓아두었다. 23.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 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24.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야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 가지고 돌아갔다. 25.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고 두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26.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7.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이요. 영락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야훼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이요?”

해설

백성들은 시나이에서 머무는 동안 성막과 그 속의 가구를 만들고, 그에 대한 건축자재의 헌납과 제물을 바치는 일 등으로 분주히 보냈다. 이것은 그들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이었다. 레위지와는 주님께 의해 따로 분리되어 예베에 속한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야영하면 성막을 세웠고, 백성들이 진군하기 시작하면 성막을 거두어 운반했다. 또한 그들은 제물이나 축제행사도 관장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었다. 주님은 아론을 대성직자로 임명하셨고, 그의 후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성직자의 직분을 맡지 못하도록 명하셨다.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이자 미리 준비된 두개의 은 나팔을 불어서 행군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시나이 북쪽의 아라비아 반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란 광야로 인도되었다. 민수기 33장에는 그들이 거쳐 간 지역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카데스바르네아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거룩한 땅의 남쪽경계에 근접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한사람씩 뽑아 12명을 그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도록 했다. 12명 중 열 명은 정탐 후 돌아와서 그곳에는 자기들이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적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쳐들어가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은 열 명의 보고를 선택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결핍되어 있어서 당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배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잘못을 행하고 그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러한 벌의 원인이 자신의 결점이었음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벌을 덮어씌우려고 한다. 심지어는 잘못된 일이 행해지기 전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참사람(주님)에게 그 탓을 돌리기도 한다. 본문은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다.

감복숭아 열매는 보관이 쉬우며 좋은 향기가 있고 자양분이 풍부한 견과이다. 또한 감복숭아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꽃도 핀다. 주님은 아론의 나뭇가지(지팡이)에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백성들이 이 징조를 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만이 진정으로 그들을 행복하고 선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려 주셨다.

실제로 백성들은 아론을 대성직자로 임명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가끔씩 자신의 방법으로도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선한 애착을 갖고 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연구에 대한 사랑 또는 유용한 일을 행함에 대한 사랑 등이 선한 애착들의 예이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선함을 행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가 자신이 행한 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더더욱 약해지는 것이 극단적인 예일 것이다.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올바른 길에 있도록 지켜준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사항을 평생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론의 가지는 증거케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라고 지시하신 주님의 명령의 의미이다. 주님은 계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본문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함만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야영한 장소는 어디인가?
- * 백성들은 시나이 산으로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가?
- * 시나이 산에서 계명 외에 어떤 다른 지침이 주어졌는가?
- * 모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어디로 가야했는가? (출애굽기 19:20)
- * 마지막으로 산에 오를 때는 며칠간 산에 머물렀는가? (출애굽기 24:18)
- *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 모세는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 * 모세는 어디서 두개의 새로운 돌 판을 다듬었는가?
- * 누가 그 돌 판에 계명을 새겼는가?
- * 주님은 본문에서 각 지파 별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고 계시는가?
- * 몇 개의 나뭇가지가 있게 되었는가?
- * 자신의 지파의 가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 * 누구의 이름이 레위지파의 가지에 쓰여 졌는가?
- * 모세는 이 나뭇가지들을 어떻게 했는가?
- * 다음날 아침 아론의 가지에서는 어떤 일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 * 아론의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분부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처음의 법은 무엇인가?
- 2) 주님은 그곳에서 그 외의 어떤 법을 주셨는가?
- 3) 왜 백성들은 모세가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 4)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5) 아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 6) 아론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 7)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내려 온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8)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9) 주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성직자 로 임명하셨는가?
-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 11) 이 백성들은 곤경의 타를 누구에게 돌렸는가?
- 12)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사람에게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13) 본문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 14) 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15) 레위지파의 나무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졌는가?

- 16) 모세는 그 가지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 17) 다음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8)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19) 주님은 아론의 가지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많은 부속법들 3) 40일 동안 가 있었기 때문
- 4)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5) 송아지 6) 귀에 걸린 금고리
- 7) 돌판을 깨트렸다 8) 파괴했다 9) 아론 10) 믿음의 결핍
- 11) 모세와 아론 12) 멸망했다 13) 가지 14) 가지에 이름들을 새겼다 15) 아론
- 16) 증거궤 앞 17) 아론의 가지에 감복송아 열매가 달렸다 18) 아론만이 대성직자 이다
- 19) 궤 앞에 보관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백성

머리말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즐거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알 수 있다.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1:7-9)등이다. 요르단을 건넌과 길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과 연관 지어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5장

5장: 1.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2. 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못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 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5.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6.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7.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뚝거지였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십사일 저녁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일절을 지켰다. 11. 과일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 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13.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나? 우리 원수의 편이나?”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해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벌을 받게 된 모든 성년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는 40년이 소요되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죽어야 할 마지막 사람이었다. 구름(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가나안 땅 접경 부근으로 인도했을 때 모세에게는 네보산 꼭대기로부터 약속된 땅을 볼 수 있는 것은 허락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벳브올 맞은 편 골짜기에 묻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는 백 이십 세였고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었다.” 신명기란 ‘법의 되풀이’라는 뜻이며, 모세 오경 중 마지막 책에 해당된다.

여호수아서는 거룩한 땅의 정복과 분할 그리고 정착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신명기 1장 38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임무를 승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서 1장 7-9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임무가 말해지고 있다. 즉,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와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만 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라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전투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과거 르비딴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사들을 이끌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열 두 스파이들 중 그와 갈렙만이 카데스에서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낼 것 없이 그 땅을 쳐들어가 정복해 버리자”하고 제안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요르단 강을 건너는 모습에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4장 1-5과 19-2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이 곳곳에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상기하려고 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모세는 르비딴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제단을 쌓기도 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면서 행한 첫 번째 일은 요르단을 건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자 강 한복판에서 얻은 열 두 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창세기 17장 9-12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유대인의 할례식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예식을 계속 지켜왔으나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를 소홀히 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식을 다시 계속해야 함을 알았다. 오늘날의 세례는 기독교인을 위한 할례로서 거행된다.

우리는 길갈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차후 거룩한 땅의 정복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임을 염두 해야 한다. 그리고 본문의 첫 문단과 끝 문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이 시작 초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음을 명백히 알도록 성경의 글자에서도 배려하고 계심을 주지해야 한다. 우리는 여호수아란 이름부터가 “구원자”라는 뜻을 지니며 그 이름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곧 “Jesus, 예수”임도 알아두어야 한다.

길갈은 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본부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예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기브온 족에 관한 이야기인 9장 6절에서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길갈이란 이름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이다. 길갈은 과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오셨던 땅에서 자유인임을 마지막으로 확고히 하셨던 지역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왔을 때 왜 곧바로 그 땅에 진입하지 못했는가?
- *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그들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 * 이 벌에서 면제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 이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처음 진을 친 장소는 어디인가?
- * 길갈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어떤 연유로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 어떤 축제가 이 길갈에서 거행되었는가?
- * 과일절 다음날 그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 * 이날 무엇의 공급이 바로 중단되었는가 ?
- * 왜 그것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2)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3) 누가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 4) 이 백성들은 어떻게 요르단 강을 건넜는가?
- 5) 그들은 강바닥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 6) 그들은 열 두 개의 돌을 취해 무엇을 했는가?
- 7) 거룩한 땅에서 이 백성들의 첫 숙영지는 어디였는가?
- 8) 길갈은 무슨 뜻인가?
- 9) 왜 길갈이 그렇게 불렸는가?
- 10)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도록 했는가?
- 11)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
- 12) 그곳에서 만나의 공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왜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 15) 천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 16)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질문의 답

- 1) 40년 2) 네보산 3) 여호수아 4) 기적 5) 열 두 돌
- 6) 기념비를 세움 7) 길갈 8) 굴림, 벗김
- 9)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10) 할례
- 11) 과일절 12) 중지 되었다 13) 그곳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 14)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 15) “야훼 군대의 총 사령관”
- 16) “네 밭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의 분할

머리말

본문은 거룩한 땅의 분할 이전인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줄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따른 세 가지 작전과 명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18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4.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 받을 땅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5. 그들은 그 지역을 일곱 몫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몫을 결정해 주리라. 7.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몫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성직자 직분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르우벤과 므나쎄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8.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몫을 결정해 주리라.” 9.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그 곳 성들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의 몫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몫 한 몫 떼어 주었다.

해설

여호수아는 길갈의 첫 숙영지를 본부로 해서 거룩한 땅의 정복을 시작했다. 이 정복은 세 가지 작전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그 땅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후 남부에서 실시되었고 마지막으로 북부에서 실시되었다. 이 작전 수행에 관한 것이 여호수아 6-11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제 12장은 우리에게 과거 모세가 요르단 서편에서 아모리족의 시혼 왕과 바산의 옥 왕을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세 작전은 7년 동안 수행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 땅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어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고향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의 적들을 완전히 정복했던 것은 아니며, 그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적이 아닌 것도 아니었다.

갈렙은 과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에 의해 자신을 위한 구역을 얻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신명기 1:36). 그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과정은 여호수아서 14장 6-15절과 15장 13-14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구역 안에서 그를 위한 성이 주어졌다(여호수아 19:49-50). 본문에서와 같이 다섯 지파는 땅의 분할이 마지막으로 있기 전에 이미 땅을 할당받았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르단 강 건너 중앙과 남쪽을 받았고, 므나쎄 반쪽지파는 요르단 강 북쪽을 할당받았다. 그리고 므나쎄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열 두 지파에 소속되어 거룩한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다에게는 이미 땅의 남쪽 부분이 주어졌다.

지파 별로 나누어진 대로 거룩한 땅의 성서지도를 찾아보면 땅의 남쪽 부분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단의 후손에게 중앙부분이 돌아갔고, 그 외 다른 지파들에게 북쪽 부분이 돌아갔음도 알 수 있다. 제 19장 47절을 보면 단 지파의 구역이 너무 협소하여 그들 후손의 일부가 레셋으로 쳐 올라가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도 불렀다. 이리하여 거룩한 땅에서 단이 최북단이 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급되면 거룩한 땅의 전 구역을 의미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 19장 9절을 보면 시므온의 구역이 유다의 구역에서 취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땅이

유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후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관한 언급이 드물다. 제 20장과 21장은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에 관하여 알려준다. 민수기 35장 1-15절을 보면 레위지파에게 성읍이 주어졌던 까닭을 알 수 있다.

지금 성막은 정복기간 동안 있어 왔던 길갈에서 옮겨져 실로에 세워졌다. 실로란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한다. 성서 지도에서 실로를 찾아보면 거룩한 땅의 중심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성막은 삼백년 동안 위치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곳에서 예배가 집전되었고 백성들은 유대인의 세 가지 큰 축제를 위해 실로를 방문하게 되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헤브론은 과거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 * 여호수아는 어떻게 나머지 땅을 분할했는가?
- * 각 지파가 가질 영토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는가?
- * 제비가 던져졌을 때 선택을 결정짓는 이는 실제로 누구인가?
- * 왜 레위지파에게는 특별한 구역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몇 개의 작전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는가?
- 2) 이 작전은 어떤 순서로 수행되었는가?
- 3) 첫 작전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4) 그 땅의 모든 적은 정복되었는가?
- 5) 항구적인 성막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6) 실로란 무슨 뜻인가?
- 7) 누가 그 땅의 분할 경계를 그렸는가?
- 8) 각 분할 지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 9) 제비를 뽑을 때 그 결정은 실지로 누가 하는가?
- 10) 그 땅의 중심부는 어떤 지파에게 돌아갔는가?
- 11) 요셉의 두 아들은 왜 이 땅을 분할하는 데에 자격이 있었는가?
- 12) 요르단 건너 지역에는 어떤 지파가 정착했는가?

- 13) 그 땅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가?
- 14) 갈렙에게는 어느 성이 주어졌는가?
- 15)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할 해주지 않았는가?
- 16)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질문의 답

- 1) 3 2) 중심부-남부-북부 3) 예리고, 아이, 기브온 4) 그렇지 않다
- 5) 실로 6) 평화 7) 각 지파의 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만들
- 8) 추첨 9) 주님 10) 요셉, 베냐민, 단 11)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
- 12) 르우벤, 가드, 므나세 반쪽 13) 유다, 시므온 14) 헤브론
- 15) 예베를 관장하기 때문 16) 48개의 성읍

14

판관 삼손

머리말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본문은 삼손이란 인물의 부주의함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함을 예증해준다.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음과 더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의 의미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4장

14장: 1. 삼손은 담나로 내려 갔다가 거기에서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2.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담나에 갔다가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은데 얻어 주십시오.” 3.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네 일족이나 네 겨레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불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 때는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불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5. 삼손이 담나로 내려가서 담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오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6.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 덮쳐 삼손은 양 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7. 그 여인에게로 내려 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8.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9.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10.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삼십 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12.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렛 동안 생각해서 맞춰 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지. 13. 그러나 맞춰 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14.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5.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15.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올라메었다. “네 신랑을 피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16.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렛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던 날 털어 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18. 이레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29.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는 19.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 가 거기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왔다.

20.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해설

주님은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수행해 오셨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당부해 두셨다. 물론 그는 이 임무를 충직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백성들은 이 임무를 잊고 말았다. 판관기 제 2장 6-13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후세들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백성들이 그분께의 순종을 중단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땅의 적들은 다시 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한 새 고향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일들에 몰두하면서 주님의 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적들을 견제할 수 있고 즐기도록 수 있다고 착각했다. 판관기의 마지막장 마지막 절은 이 백성들의 과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어야 하며 그분의 분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땅의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기는커녕 참으로 나약했다. 시간이 흐르자 적들이 곳곳에서 그들을 성가시게 하며 억누르면서 결국 그들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일이 이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처럼

그들을 도우셨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심을 의미한다. 주님은 적들이 공격해 온 지역에서 적들에 대항하여 그 지역의 백성들을 이끌 강한 지도자를 들어 세워주셨다. 이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르며, 판관기서는 그들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본문의 시대는 그 땅의 남쪽지역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살고 있는 블레셋에 억눌려 있던 때이다. 성서지도에서 그들이 살았던 장소를 살펴보면 단 지파도 그 옆에 정착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다의 경계선 근처에 소라 지방이 위치해 있고, 그 남서쪽에 담나 지방이 위치하고 있다. 소라는 단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고, 담나는 블레셋에 소속된 지역이다. 제 13장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그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 낼 것이라고 말해짐을 볼 수 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제물을 바쳤고, 그 제단의 불을 타고 올라가는 천사를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 아이가 반드시 나지르인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르인이란 주님을 섬기는데 바쳐진 사람을 말한다. 나지르인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며 머리털을 깎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아이를 삼손이라고 이름 지었다.

제 15장에서는 삼손이 행한 많은 공훈에 관하여 언급된다. 이 장을 읽게 되면 블레셋이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이유도 알게 된다. 그들은 삼손이 인간의 힘 이상의 것을 가졌음을 알게 되자 그가 사랑한 여인을 통해 그에게 올라미를 씌우려고 했다. 삼손을 배신한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델릴리였다. 그녀는 삼손에게 힘이 센 이유를 말해달라고 감언으로 설득하여 비밀을 캐냈다. 주님은 삼손이 나지르인의 법에 충실하고 그의 머리털을 깎지 않는 한 그에게 힘을 주실 수 있었다. 그가 머리털이 잘린 후 잠에서 깨어난 다음의 이야기는 판관기 16장 20-3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가 성장해서 부모를 불쾌하게 만든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가?
- * 그가 담나로 가는데 무엇이 그를 위협했는가?
- * 삼손은 사자를 어떻게 죽였는가?
- * 그는 두 번째 내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했는가?

- *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답을 얻었는가?
- * 삼손은 그 내기에서의 의무를 어떻게 지켰는가?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2)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3) 그들이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가?
- 5) 그가 장차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해졌는가?
- 6) 나지르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7)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가?
- 8)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 9)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가 처음 블레셋 여자에게 갈 때 드러난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 11)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 13) 그 이후의 삼손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는가 ?

질문의 답

- 1) 하느님을 잊었다 2) 적들이 봉기했다 3) 판관들 4) 나지르인
- 6) 머리털을 깎지 않음 7) 블레셋 8) 머리털 9) 여인, 자만
- 10) 사자를 죽임 11) 꿀
- 12)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 13)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졌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

머리말

먼저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과 판관인 사무엘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8장

8장: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리마로 사무엘을 찾아 가 5.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6.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알려 주었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알려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말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13.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14.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17.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18.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듣는 체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던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22.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해설

사무엘은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가 다른 판관들과 달랐던 사항은 그가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잘 살 수 없다고 실감하기 시작했다. 물론 극소수이지만 일부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주님이 더 슬기로우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그분께 신신했다. 우리는 1장을 통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의 주님에 대한 예배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성막의 예배를 관장한 대성직자는 엘리였는데, 그는 아주 나이가 많았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주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약했었는데, 그녀는 약속한 바대로 그를 실로의 성막에 데려다가 성막에서 양육되도록 했다. 그 후 주님은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밤중에 그를 불러서 엘리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무엘상 3장 19-20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전 지역의 판관이었던 말이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선하며 의로웠는가를 알 수 있다. 본문의 시대는 사무엘이 고령이 된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야 비로소 그의 리더십 하에서 편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 7장 마지막 몇 구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라마에 살면서 오늘날의 순회판사가 여러 지방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판결하듯이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전 국토를 순회한 것은 아니었다.

히브리라는 국가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자. 이 백성들의 첫 지도자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부름을 받고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 뒤 이삭과 야곱 역시 백성들을 통치할 권한을 주님께에서 직접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래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 대신 파라오의 통치하에 있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요구에 상당히 언짢아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그에게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누군가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에 의해 임명되는 대신 그들 스스로 누군가를 통치자로 뽑기를 원했다. 이른바 타민족들이 하는 것과 같은 왕의 통치를 원했다는 말이다.

위에서 대략적으로 열거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 온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사실 우리 삶의 긴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아기라는 어린 시절을 거치는데, 이 성장기의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통제된다. 즉,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사람들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타인에 의해 통제 받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시기에 접어든다. 이런 시기들이 판단 시대와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동안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갖가지 것들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승자박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런 시기의 뒤죽박죽되는 삶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에 해당된다. 어찌됐던 간에 세월은 흐르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여 아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발로 굳게 세상에 서 보길 원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치해나갈 것인가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인도할 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해하려고 원한다. 이것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하는 바다. 차후 이 백성들이 선택한 첫 왕이 어떤 종류의 왕이었는데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사무엘은 자기 밑에 누구를 관관으로 세웠는가?
- * 그의 아들들은 어디서 판결을 했는가?
- * 그 아들들이 어떤 불의를 저질렀는가?
- *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백성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무엘은 기뻐했는가?
- *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사무엘은 왕이 있게 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경고했는가?
- *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었는가?
- * 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 그는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 * 누가 모세를 따랐는가?
- *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 * 관관들은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 * 사무엘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관관인가?
- 2) 그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 3) 사무엘이 어릴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는가?
- 4)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5) 사무엘과 다른 관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인가?
- 7) 그가 고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만족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8) 백성들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 9)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반겼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이 무엇 같다고 말했는가?
- 12)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실로 3) 엘리 4)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5) 종교적 지도자, 전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했다 6) 라마 7) 자기 아들에게 판결하게 했다 8) 왕 9) 반기지 않았다 10) 왕을 세워 주시오 11) 거친 감독 12) 바꾸지 않았다

16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

머리말

사울의 기름부음, 제비로 뽑혀진 사울, 사울의 용모에 흠족해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첫 변절에 관한 10장 8절과 13장 8-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5장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3.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젓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4.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델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 만이었고 유다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었다. 5.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5. 켈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켈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7.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일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 가며 쳤다. 8.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9.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군은 아각 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 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 버렸다.

10. 이 일이 있은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12.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사울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 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 갔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하며 인사를 하였다. 14.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었다. 15.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하고 변명하자 16.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18.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 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고 하지 않으셨소?

19.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 왔습니다. 21.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23.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장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요.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요.”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25.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26.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27.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29.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30.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31.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32.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33.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34.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여 마지않았다.

해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할 것임과 그로 인해 자신이 현혹됨을 경험에 의해서만 배워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사울의 첫 전투는 요르단 건너에 있는 암몬족과 대결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백성들은 이 전투로 인해 사울이야말로 왕으로서의 책임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승리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다. 그는 잘 해보려고 노력하며 용감하기도 했지만 슬기롭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심히 당황하여 전투를 이끄는 적당한 방법조차 생각해내지 못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이 왕이더라도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인 이상 전투를 시작하기 전 칠일동안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물을 바친 뒤 전투에 임하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서 성급함이 일어나게 되자 칠 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제물을 바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후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라고 꾸짖으며,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라고 예언했다.

사울이 대항하여 처음 승리를 거둔 적은 암몬족이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끈질긴 적이었다. 이 적들은 사울이 싸움을 걸기도 전에 싸울 태세를 하고 달려들기도 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들을 직접 위협하지 않은 듯 보이는 과거의 적들을 단번에 공격하여 쓸어버리라고 말한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강하여서 전투에 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와 이스라엘 군대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주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에게 무가치하고 나쁘게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파괴해 버렸지만,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남겨 두고 싶은 시험은 물리 칠 수 없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에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취함에 따라 그 사람은 물론 전 이스라엘군이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여호수아서 7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스라엘이 가진 전투는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와 잘못된 생각에 대항하여 갖게 되는 전투를 의미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가까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해치며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울과 같이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 분명히 해를 줄 것 같은 것들은 모두 파괴하고 좋을 것 같은 것, 즉 “양과 소중에서도 좋은 놈”은 없애 버리기를 아쉬워하게 된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속의 이기심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기는 속성이다 보니 그것을 아낀다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난 성미가 정말 불같아.”라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듯 말하면서도 툭하면 화를 낸다. 그리고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우리가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겉으로만 자신의 성미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결점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거나 즐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그가 화를 낸 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순간이나마 화를 누그러뜨려 자신의 잘못된 점을 조절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실제로 상식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닿으면 그러한 잘못된 속성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주위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잘못된 속성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이처럼 제삼자도 금방 지적할 수 있는 외적으로 잘못된 것은 파괴시키면서도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왕을 살려둘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든 고난의 뿌리는 건드려보지도 못한 채 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적이란 누구인가?
- *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그 적의 이름과 그 적과의 전투를 공부했는가?
- * 그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 * 아말렉 족의 공격수법은 어떤 것인가?
- * 사무엘은 아말렉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했는가?
- *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 사울은 가족들 중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에 대해 사무엘에게 어떻게 변명했는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은 그를 어떻게 가지 못 하도록 했는가?
- * 사무엘은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 아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첫 왕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었는가?
- 3)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됨을 기뻐했는가?
- 4) 그는 어느 영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가?
- 5)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적은 누구인가?
- 6) 그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 7)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가?
- 8)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9)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적에 대하여 공부했는가?
- 10) 이 적과의 최초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11) 주님은 이 적을 어떻게 쳐부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가?
- 12)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4) 어떤 징조가 발생했는가?
- 15) 사무엘은 아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제비로 3) 키가 크고 힘이 세서 4) 요르단 건너 지역 5) 블레셋
- 6)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7)요나단 8)아말렉
- 9)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최초의 적이었다 10)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음으로
- 11) 완전히 파괴하라 12) 왕과 좋은 가족을 살려 두었다
- 13) 그는 왕국을 잃게 된다 14) 도포가 찢어짐 15)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

다윗과 예언자 나단

머리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라는 사무엘의 엄명이 떨어지게 함과 더불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다음 사울이 계속 왕위에 있는 동안 다윗의 생애는 사울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두 왕의 상이점과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12장 1-25절

1.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의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3.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름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4.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5.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6. 그런 인정 머리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7.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8.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아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 네가 이렇게 나를 얹보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12.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13.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얹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16.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17.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18. 아기는 마침내 칠 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20.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22.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소?"

24.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5.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해설

다윗의 첫 수도는 헤브론이었다. 그는 거기서 가나안 땅의 남쪽부분을 칠 년간 통치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분배되는 과정에서 갈렙에게 주어진 성읍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후 거룩한 땅의 북쪽지역도 다윗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여부스족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궤를 모셨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그곳에 새 성막을 지어 궤를 안치했던 것이다. 주님은 다윗이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적이 그의 발아래 무릎 꿇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넓은 국경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하느님이 번성도록 해준 인물들이 모두 선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을 영웅적인 인물로 닮아야 할 삶의 표본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 본문의 다윗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다윗이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 그는 그녀가 이미 결혼했음을 알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뒤 그녀와 결혼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왕이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언자 나단은 주님께 의해 다윗에게로 보내졌다. 나단은 다윗 왕이 죄를 지었다고 곧장 지적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즉시 취하게 된다. 그래서 나단은 우선 다른 사람에 관한 가상적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 주었다. 다윗은 그 이야기속의 부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즉시 알았고 그 부자를 엄하게 판결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자신이 부자와 같이 행했음을 알게 되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공명정대하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실 때 기꺼이 그 말씀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잘못을 가벼운 벌로 때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자라나올 수 있는 어떤 선을 파괴시키고 만다. 이른바 본문에서

의 다윗의 아들이 죽음에 처하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손실을 허용하실 때 쉬운 방식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교훈은 이미 행해진 것은 행동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면 이미 행해진 과오, 즉 자신의 잘못된 경험이 스스로가 더 강해지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바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솔로몬의 부모가 되도록 허용된 이유인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결점과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들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도록 원하고 계신다. 모든 말씀은 본문에서 다윗에게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비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을 보고 인정하도록 하여 날마다 더 나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 그는 기름부음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사울은 다윗의 어떤 재능 때문에 그를 좋아했는가?
- * 그가 단번에 때려눕힌 적은 누구였는가?
- * 그 때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
- * 사울의 궁전에 있었던 그의 특별한 친구는 누구인가?
- * 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했는가?
- * 죄를 범한 다윗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 *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중병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 * 그는 아이가 죽자 신하들을 어떻게 놀라게 했는가?
- * 그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 *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3) 그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4)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 5) 그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가?
- 6)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가?
- 7) 다윗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는가?
- 8) 그는 얼마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는가?
- 9) 그는 전 국토의 왕이 된 후 어떤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 10) 그가 그 성에 모신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11)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한 업적은 무엇인가?
- 12)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 13) 주님은 그를 견책하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 14) 나단은 어떤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는가?
- 15) 다윗은 비유속의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 16) 그런 다음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7) 다윗은 어떻게 나단의 질책을 받았는가?
- 18) 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먼저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베들레헴 3) 목자 4) 사무엘 5) 하프연주자였기 때문
- 6) 자갈과 돌팔매로 7) 헤브론 8) 7년 9) 예루살렘 10) 궤
- 11) 주위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12) 바세바와 정을 통했다 13) 나단
- 14) 부자와 가난한자, 암컷 새끼 양 15) “죽일 놈”
- 16) “네가 그 사람이다” 17) 회개했다 (시편 51편 참조)
- 18) 공정한 판단과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기 위함

솔로몬의 최후

머리말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의 뜻, 다윗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상이점, 그의 지혜와 영예 그리고 성전건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우상숭배로 전락한 원인이 아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로보암이 받은 겉옷 조각과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도포조각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사무엘상 15:27-28).

성서 본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26-43절

11장: 1. 솔로몬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2. 야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꺾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3. 솔로몬은 무려 칠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드는 여자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4.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6.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7.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8.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지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9.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며 10. 그 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11.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 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쫓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쫓아내리라. 13. 그러나 이 나라를 쫓아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테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이였다. 27. 그가 반기를 든 경우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28.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29. 한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 두 조각으로 찢었다. 31.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열 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32.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33.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 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34.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장차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쫓아내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36.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37.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38.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39.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 두지는 아니하리라.”

40.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1.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42.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3.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해설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을 지닌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소탕하여 솔로몬의 통치는 평화스러울 뿐이었다. 주님은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때 솔로몬은 부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했다. 주님은 이를 매우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그가 요구한 지혜 외에 부와 영예도 더하여 주셨다. 솔로몬은 아주 슬기로우셔서 타국의 왕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소유물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다르짓 상선 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 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해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새 등을 사들여 오기도 했는데, 이는 열왕기상 10장 22-23절로 알 수 있다. 솔로몬 왕은 땅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고 궤를 안치할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그에게 허용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법한 아주 간단한 경험을 예로 들어 보자. 어느 날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날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날에 매우 행복해 하며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과거에 배웠던 것들, 즉 남에게 친절해야 된대거나 금기시 된 사항들에 관한 교훈을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저녁때쯤 어떤 일 하나를 매우 흥미롭게 여기면서 “내가 하루 종일 남을 도와주었는데, 한 가지쯤 내게 재미있는 것을 해도 괜찮을 거야.”하고 생각하고, 그 한 가지가 타인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친구나 부모님께서 그 일의 상황을 파악하여 “너는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놓고 한 가지 일로 좋은 날을 망치는

구나”라고 우리를 질책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의 솔로몬인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부다처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에게 적국인 우상숭배 국가들로부터는 결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해 두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다. 주님은 장차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솔로몬은 아내들의 꾀에 넘어가 그녀들의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적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여 솔로몬 왕국의 평화를 위협했다. 결국 솔로몬의 부하중의 한 명이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솔로몬의 아내는 누구였는가?
- * 그는 본문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 왜 그 일이 죄인가?
- * 그가 늙자 그의 아내들은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꾀었는가?
- * 주님은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 * 언제 그 일이 발생했는가?
- *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부하는 누구인가?
- * 솔로몬은 그에게 어떤 지위를 주었는가?
- * 여로보암은 어떤 예언자를 만났는가?
- * 아히야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
- * 이전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와 유사한 행동이 있었는가?
- *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솔로몬은 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 *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3) 이 왕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 4) 주님은 그 요구에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 5)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6)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 7) 그는 그 외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성취되었는가?
- 10) 솔로몬의 왕국 중 몇 지파를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가?
- 11) 누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 12)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 13) 누가 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가?
- 14) 그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는가?
- 15)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 16)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질문의 답

- 1) 솔로몬 2) 솔로몬 3) 지혜 4) 부와 명성 5) 성전 6) 많은 외국여자와 결혼했다
- 7) 우상숭배 8) 나라를 잃는다 9) 성취되지 않았다 10) 1 1/2지파 11) 여로보암
- 12) 솔로몬의 신하 13) 아히야 14) 옷을 찢었다 15) 그를 죽이려 했다 16) 이집트

엘리사와 나아만

머리말

우선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 없이 괴롭힌 시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5장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환자였다.
2.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3.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 주실 텐데요.” 4.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5.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세겔,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8.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10.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와 깨끗하게 될 것이요.” 11.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 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2.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돌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 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8.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옆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20.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오고 말겠다.” 21.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22. 게하지는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보내 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23. 나아만은 “드리디뎨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 부하 두 사람에게 돌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24.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 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낸 후 25. 들어 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 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가 있었지만, 27.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해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에 오른 시작부터 비극적인 실수를 행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서 그곳의 정기 축제에 자주 참석하다 보면 유다왕국의 왕 르호보암의 통치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의 최남단인 베렐과 왕국의 최북단인 단에 금송아지 상을 하나씩 세워 놓고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축제나 그 우상에 번제를 바치는 정규예배를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북쪽왕국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갔고 온갖 종류의 사악함이 왕국에 득실거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한 계보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왕들은 자신들의 부하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새 왕들에 관하여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부친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언급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국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런 왕국의 형편을 타서 다시 득세했던 것이다.

앞서 우리는 엘리야의 선교에 관하여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리는 견책과 경고를 전달한 후 마지막에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리어졌던 것, 그의 걸음이 엘리사 위에 떨어졌던 것 그리고 그의 영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약속했던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임무를 이어받았는데, 본문은 엘리사의 임무 수행중의 한 부분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국력이 강했던 시리아가 있었는데, 그들의 세력은 점차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나 왕국의 보물들을 강취해 갔다.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라는 매우 큰 도시였다. 거룩한 땅의 두 왕국의 분단, 각 왕국의 수도의 위치, 두 개의 금송아지 상이 세워진 지역 그리고 시리아라는 새로운 적이 위치했던 지역을 성서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시리아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관찰하면 그가 엘리사를 전혀 염두 하고 있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가 곤란을 처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 그랬듯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인간적인 궁리나 노력을 경주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한다.

요르단은 사람들이 거룩한 땅 내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강이다. 이 강은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지향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진리를 상징한다. 주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의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의 입구로서의 요르단 강은 십계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충고에는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계명을 준수함이 한번만으로 충분치 않음도 암시되어 있다. 즉, 계명을 준수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일곱 번 몸을 씻도록 한 구절의 의미이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나라들이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란 세상적인 생각에 의해 발달된 세상적 지침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 배가 먼저 부른 게 우선이야.” 혹은 “우리는 사업과 종교를 함께 생각할 수 없어.”와 같은 주장은 우리에게 아주 합당한 것처럼 들린다. 이런 세상적인 지침이 십계명보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아만이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의 의미이다.

나아만을 낮게 한 대가를 사취한 게하지의 죄는 우리의 어떤 선행도 결코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를 통해 선을 베푸시는 분도 언제나 주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하지는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이는 문둥병이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기적이면서도 선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혹은 명분을 세워 의를

행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행하는 정의의 실현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 그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누가 그에게 병이 치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왕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 누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따르라고 설득했는가?
- * 그 조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 * 이 결과 나아만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게 되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이 제공한 보상을 승낙했나?
- *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엘리사의 시종은 무엇을 피했는가?
- * 그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질문 정리

- 1)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2) 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가?
- 3) 그 송아지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
- 4) 주님은 어떤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냈는가?
- 5) 본문에서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6)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7) 그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 8) 누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가?
- 9)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10) 나아만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13) 엘리사의 시종은 무슨 짓을 했는가?
- 14) 그의 별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 2)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임
- 3) 베델, 단 4) 엘리야와 엘리사 5) 시리아 6) 나아만 7) 문둥병
- 8)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9) 요르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 10)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강보다 더 낫다 11) 치료되었다
- 12)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3) 보상을 원했다
- 14) 문둥병자가 됨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머리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두 국가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던 반면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재건되었음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4장, 25:1-12, 예레미야 21장

열왕기하 24장: 1.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와서 여호야킴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2.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므나שה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4.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5. 여호야킴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6.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 이집트왕은 이집트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 여호야긴은 십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9.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 와서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12.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팔 년이었다.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 갖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14.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일만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 두었다. 15. 그는 여호야긴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6. 그리고 유력자 칠천 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18. 시드키야는 이십 일 세 때 왕위에 올라 십 일 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19. 시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했던 것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로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25장: 1. 시드키아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아왕
구년 시월 십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2.
이 포위는 시드키아왕 십일 년까지 계속되었다. 3. 그 해, 성에 기근이 흑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사월 구일에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 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뜰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6.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7. 그는 시드키아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아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 구년 오월 칠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 와 9.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10.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11.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왕
에게 항복해 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 갔다. 12.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예레미야 21장: 1. 시드키아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성직자
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2.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야훼께 빌어 주시오” 3.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 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아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 가운데다 모아 놓으리라. 5.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6.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7. 똑똑히 말하여
둔다. 이렇게 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 왕 시드키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처

죽일 것이다.’

8.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9.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0. 내가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빌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11.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2.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꾀잡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 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계곡을 굽어 보는 예루살렘아,

별관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 오느냐?’하고 말한다마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치리라.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수풀궁에 불을 질러

둘레를 온통 태워 버리리라.”

해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의 지배권이 서쪽으로 확장될 때 썸 있게 된 왕국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정복당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가서 되돌아오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후예들은 종종 성서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언급된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동쪽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스라엘에 정착시켰다. 이렇게 이주한 백성들의 후손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인 수백년 후까지도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곧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유다왕국은 이스라엘 왕국보다 더욱 오래 존속되었다. 하지만 유다왕국 역시 일부 왕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나쁜 본보기를 닮아서 주님을 예배함과 더불어 우상도 예배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는 주님을 상기시켜주는 성전이 있었다. 일부 선한 왕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그 왕들이 바로 아사와 히즈키야 그리고 요시아이다. 또한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유다왕국에 있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백성들의 악행이 유다 지역에서도 더욱 득세하기 시작했고, 동방의 나라들인 아시리아와 바빌론도 점점 유다 왕국을 지배하려고 했다. 유다왕국은 그들 스스로 한 때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공물도 바쳤다. 그리고 최후에는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까지 모두 주면서 왕국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게 되자 북쪽의 방어는 허술하게 되었고, 이집트 역시 그들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본문 첫 장에서 알 수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유다의 왕에게 충고했다. 이런 이유로 바빌론 왕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향에 남아 있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에게 고향에서 조용히 정착하고 바빌론의 왕에게 순종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백성들 중 일부는 매우 두려워하고 이집트로 도망쳤는데, 그들은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다. 애가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그가 죽기 전 이집트에서 그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예레미야서의 일부 마지막 장도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왕기하 25장 후반부는 바빌론의 왕이 시드키야의 전임자인 여호야긴을 포로 생활 중에 어떻게

우대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때로부터 망명 생활은 보다 더 쉬워졌고, 그로부터 칠십 년 후 주님이 바빌론왕의 심중에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허용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 이전의 왕은 누구인가?
- * 그 왕은 포로로 되어 끌려갈 때 어디로 잡혀갔는가?
- *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 이 왕은 주님께 사정 하도록 누구에게 특사를 보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백성의 어느 계층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 * 유다 땅에는 어떤 계층만 남게 되었는가?
- *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가?
- 2)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이 적에 대항해서 유다왕국은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 4) 유다의 선한 왕들은 무엇을 추진했었는가?
- 5) 어떤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6) 유다의 어떤 왕 시절에 바빌론 사절단이 내왕했었는가?
- 7) 어떤 예언자가 이 사절단의 결과를 예언했는가?
- 8)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8) 이 마지막 왕은 어떤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 10)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 어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13)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아시리아 2) 영원히 끌려갔다 3)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기 때문 4) 개혁 정치
 5) 바빌론 6) 히즈키야 7) 이사야 8) 시드키야 9) 예레미야
 10)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1)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감
 12) 왕자와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등의 유력자들 13) 가난한 자

21

말씀에 관한 시편

머리말

해설 은 시편을 위한 배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본다. 이 시편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은 제 1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요점을 주로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시편 119편

1.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2.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3.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가는 사람.

4.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5.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균곤하게 살도록 해 주소서.
6. 그 명령을 낱낱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8.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10.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11.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12. 아뢰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뒤풀이했습니다.
14.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15.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알려 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16.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19.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20. 자나깨나 당신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사옵니다.
21.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22. 내가 당신의 언약을 지켰사오니
이 모욕과 멸시를 벗겨 주소서.
23.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좋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24.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이옵니다.
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26. 내가 살아 온 길 보이매 응답하셨사오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괴로와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31. 아뢰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
33. 아뢰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36.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사오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41. 아뢰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 주소서.
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
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44. 당신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사오니
내 닳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옵니다.
50.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에 버티고 굴치 않았사옵니다.
52.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오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옵니다.
53.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54. 나그네살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이다.
55.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56.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57.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58.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내가 몹시도 힘쓰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59. 지금까지 걸어 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60.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61. 악인들의 올라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62.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64. 야훼여,
당신의 사랑이 땅에 넘치웁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5. 야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셨사옵니다.
66.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이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67.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빛나갔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68.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9.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피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은 마음에 기름기 끼었으나
나에게 미각은 당신의 법이웁니다.
71.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 줍니다.
72.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74.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둔 이 몸을 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하리이다.
 75. 야훼여, 당신의 판결은 옳사옵니다.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다.
 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주소서.
 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
 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주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에게 오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주소서.
 80. 이 마음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소서.
 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83.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84. 당신의 종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몸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팠사옵니다.
 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89. 야훼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사옵니다.
91. 모든 것이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사옵니다.
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93.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
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 없이 넓사옵니다.
97.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98.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99.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100.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와지리이다.

101.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102.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103.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104.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105.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106.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107. 야훼여, 나의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08. 야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109.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110.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라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111.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112.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읍니다.

115.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117. 내가 기뻔 지주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 뜻을 살피리이다.
118. 당신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잊어 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119.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처럼 치우시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사랑하옵니다.
120.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떨리우고,
당신의 판결이 이 몸은 두렵기만 합니다.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사오니,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를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26. 야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나서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붙잡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견게 하시고
약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137. 야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사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우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145. 야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146.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147.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48. 뜬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149. 야훼여,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판결로써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0.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151.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52.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153. 당신의 법을 내가 잊지 않으리니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건져 주소서.

154. 고발당한 이 몸을 변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5.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당치도 않습니다.

156.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158.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들을 보고 내 마음 심히 불쾌하옵니다.
 159. 보소서, 야훼여,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60. 당신의 말씀은 한 마디로 진실, 그것이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
 161. 권세자들이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163. 거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당신 법을 좋아하고 시행합니다.
 164. 당신의 옳은 판결, 찬송하오니
 하루에도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
 165.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166.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랐사오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67.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168.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169. 야훼여, 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170. 당신 어전에 나의 기도소리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소서.

171. 당신 뜻을 당신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172.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 주소서.

173.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174. 이 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바른 판단 내리시어 도와 주소서.

175.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176.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해설

시편이란 노래라는 뜻이다. 우리 역시 예배시간에 자주 이 시편들을 노래한다. 물론 우리는 노래와 더불어 피아노나 오르간의 반주를 곁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현대와 같은 악기는 없었지만, 그들 역시 오르간 종류에 속하는 악기를 가졌었다. 그 악기는 몇 개의 파이프를 묶어 놓은 관악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오르간이란 단어가 모든 관악기를 망라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악기에 관한 사항은 창세기 4장 21절에서 처음 언급된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다른 악기들도 사용했다. 시편의 머리글자를 읽어보면, 그 시편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ginoth”란 현악기를 그리고 “Nehilth”란 관악기를 말한다. 시편의 머리글자에 있는 어떤 말은 그 시편이 노래로 불러질 때 쓰이는 특별한 곡조인 가락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의 아엘랏 샤할(Aijelath Shaha)이란 표시는 “새벽 암시슴” 가락으로 부르라는 표시이다.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 레위지와 사천 명을 따로 떼어 내서 예배의 음악 부분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과 세 명의 대표자인 헤만과 마삽 그리고 에단이 다윗의 시대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후계자들은 성악과 연주를 계속하도록

교육되었다. 즉, 노래가 그들의 직업이었다는 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음악 행사에 참가했었는데, 이는 시편 68편 25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을 통해 영감 되어 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편서는 종종 다윗서라고도 불린다. 다윗 왕은 노련한 하프연주자여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노래한 시편의 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자신이 창작했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

본문은 가장 긴 시편이다. 본 시편은 매 문단이 8절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성경의 경우(King James 번역판) 매 문단 위에 이상한 단어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된 22개 글자들의 이름이다. 히브리어로 읽는 본 시편은 8절이 한 문단을 이루는데, 각 문단을 이끄는 첫 글자는 각 문단 앞에 쓰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본 시편은 “알파벳순으로 쓰인 시편”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형식의 시편은 본 시편을 제외하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본 시편만큼 정확하게 쓰이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알파벳에 거룩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진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본 시편의 경이로운 사실중 하나는 한결같이 말씀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근원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 삶에 말씀이 결과 되는 것 등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시편을 유심히 읽게 되면 매 구절마다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법, 언약, 가르침, 명령, 계명, 판단 그리고 말씀 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본문의 시편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본문에서 거듭하여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시편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주님에 관한 것과 자신의 삶에 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또한 본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행복도 길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해준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속의 진리를 공부하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시편은 무엇인가?
- 2) 유대인들은 시편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3) 누구를 통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 4) 다윗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5) 주님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가장 긴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 7) 이 시편의 구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8) 이 시편의 일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9)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10) 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 11) 왜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가?
- 12) 일부 시편들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가?
- 13)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어떤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노래 2) 찬송가 3) 다윗 4)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 5) 주님께 관해 예언되어 있다 6) 119편 7) 알파벳 8) 말씀
- 9) 매 구절마다에서 10)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 1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 12) 주제에 대한 완벽한 요약에 담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 13) 글자 또는 글자적 의미

벨사살왕의 잔치

머리말

먼저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면을 살펴본 후 본문의 세부사항을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5장

5장: 1.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 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4.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5.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6.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7. 미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재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 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8. 그러나 불러 나온 왕실 재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9. 벨사살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10. 그 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 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미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12.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13.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여 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14.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15. 나는 재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16.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 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19.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 나 영화를 빼앗기고 21. 세상에서 쫓겨 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22.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선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 지시기는 커녕 23. 오히려 하늘의 대주재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 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 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25. 저기 쓴 글자들은 ‘므네 므네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27. ‘드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28. ‘브라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사에게 갈라 주신다.’는 뜻입니다.”

29.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30.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 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 이세였다.

해설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언서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하서 (룻기서 제외) 까지가 포함되고,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애가서 제외, 사실상 예레미야서에 포함됨)까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 예언서는 역사서로, 후기 예언서는 예언서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로 다시 분류한다. 대 예언서는 한 권의 책이 부피가 커서 한 두루마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라는 말을 사용했고, 소 예언서는 한 두루마리 안에 12권이 모두 기록되어 각 책의 부피가 작아서 “소”라는 말을 사용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간 뒤 그곳에서 애가서를 썼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대 예언서인 에제키엘과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 동안 쓰여 졌다. 에제키엘은 포로가 되기 전부터 성직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이유로 그의 책이 유대인의 예언서 안에 속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에제키엘이 환상을 받기 위해 수차레 영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예언자가 거룩한 땅 밖에서 영감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의아스럽게 여겼는데, 이런 이유로 애가서와 다니엘서는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경이란 교회를 통치하거나 결정짓는 성경을 말한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예언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국을 정복한 후 최초로 데려간 포로들 중에 있었고, 왕가의 일원이기도 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참고하면 다니엘의 역사초기를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자가 되었던 과정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나 점성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에 대해 해석할 수 없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이로 인해 왕은 다니엘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일원이 되도록 했다. 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에 대해 언급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18-21절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된다. 본문에서의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관한 것 역시 잊고 있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이 예언한 바대로 메대왕이 왕국을 차지했고, 페르샤의 고레스가 후대 왕이 되었다.

우리는 다니엘이 벽에 써진 글을 해석할 때 그가 단어 「Upharsin」 대신에 「Peres」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단어가 단지 형태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Upharsin」에 있는 「U」는 갈대어나 히브리어에서는 “and”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어 앞에 이 소리를 놓으면 그 단어의 첫 글자의 소리가 변형된다. 여기서는 “p”와 “ph” 사이에 소리상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단어의 끝부분에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빌론에서 사용한 갈대아어도 히브리어와 거의 유사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예언자란 무엇인가?
- * 왜 주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가?
- *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 *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들은 누구인가?
- * 이사야는 언제 살았는가?
- * 예레미야는 언제 살았는가?
- *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 무슨 일이 그를 덜덜 떨게 했는가?
- * 그는 처음에 써진 글자에 대한 의미를 누구에게 물어보았는가?
- * 바빌론의 현자들은 그 왕을 도울 수 있었는가?
- * 누가 다니엘을 왕에게 천거했는가?
- *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고 다니엘에게 약속했는가?
- * 이 약속에 대해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는가?
- *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 * 그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예언자란 무엇인가?
- 2) 왜 주님은 예언자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 3) 기억나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5)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6)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7)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8)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9) 애가서는 누가 썼는가?
- 10) 애가서는 어디서 쓰여 졌는가?
- 11)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예제키엘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 13) 예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가끔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14)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에게 능력들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 16)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 누가 그곳의 왕이였는가?
- 17)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 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랐는가?
- 18) 다니엘과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 19)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 20) 그는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 21) 무엇이 그를 겁나도록 했는가?
- 22)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인가?
- 23) 다니엘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24) 본문의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자 2) 견책, 경고 3)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등
- 4) 대 예언서는 길고, 소 예언서는 짧다 5)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6)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 7) 유다왕국 말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 8)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레미야 10) 이집트
- 11) 포로중에, 바빌론 12) 성직자 13) 예루살렘 14) 꿈을 해석하는 능력
- 15)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 16) 느부갓네살 17) 꿈을 해석했다 18) 요셉 19) 벨사살
- 20) 성전의 집기들을 모독했다 21) 벽에 써진 글 22) 므네, 므네, 드켈, 브라신
- 23) 세었다, 달았다, 나누었다 24) 그날 밤에

23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

머리말

먼저 유다왕국이 정복당하는 역사적 시점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1-5장까지를 재고해 본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6장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이 세였다. 2. 다리우스는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세 사람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 그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4.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5.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

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트집잡을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6.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7.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 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8.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9.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 못하는 법입니다.” 10. 다리우스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11. 왕이 그 금령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것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 12.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13.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 친히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14.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세 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15.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16.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 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샤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17.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굶하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18.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 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왕은 궁으로 돌아 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20.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21. 그는 우리에게 다가 서서 목neck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 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 내 주었느냐?” 22.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됩니다. 23.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24.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25.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 다가 사자 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26. 다리우스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27.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27.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28.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 내셨다.”

29.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샤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해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국을 정복했으나 처음부터 그 나라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는 근동의 모든 국가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슬기로워서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공물을 바친다면 그들을 그대로 살게 해주려고 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역했고,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정복의 단계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4절로 알 수 있는 사항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정복의 초기에 일부 유다 왕가의 뛰어난 왕자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궁전에서 바빌론 식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자들을 포로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면서 교육까지 시켜주었다. 이 젊은이들 중 네 명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는데, 그들은 과거 그들의 나라에서 배웠던 종교에 대한 신념을 버리기를 거절하고 주님에 대한 예배에 더욱 충실했다. 우리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의 이름을 다니엘서 1 장 6-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들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었다. 즉,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네흐가 느부갓네살이 우상으로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이다. 다니엘서 3장은 이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이 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그는 바빌론 전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약간 경시되었다. 그러나 그는 벨사살의 통치 시기에도 다시 유명해졌는데, 이는 그가 벽에 써진 글을 읽고 해석하여 벨사살의 죽음과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으로 분열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벨사살의 뒤를 잇게 된 메대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했다.

본문의 이야기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첫째는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우리 자신도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뭔가를 성급하고 소홀히 결정한 후 차후에 미안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조금 늦더라도 잠시 멈추어 잘 생각해 보고 결정짓는 것이 좋은 생활규범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다리우스처럼 자신이 결정한 결과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이 제시한 조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세상속의 악들이 창조해 내는 많은 위험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후반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의를 행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타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보게 하여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 이후의 다니엘서는 그에게 주어진 몇 가지 예언적인 환상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을 대신해서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분의 재림이 이뤄지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 질 때 쫓 있게 될 교회의 상태까지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말씀하신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계시록 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다니엘이 진정으로 위대한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그와 동 시대의 예언자인 에제키엘이 언급한 바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제키엘 14장 14절도 읽어보자.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어떤 나라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 유다를 정복한 나라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다니엘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 * 다리우스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는가?
- * 중앙의 관료들이나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 * 그들은 왜 다니엘에게서 어떤 결점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 *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어떤 술책을 썼는가?
- *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의 특이한 사항은 무엇인가?
- * 다니엘은 특별한 새 법에 순종했는가?
- * 왕은 다니엘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는가?
- * 왕은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보였는가?
- *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로부터 구해졌는가?
- *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다리우스는 어떤 새 칙령을 공포했는가?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누구인가?
- 2) 왜 그는 바빌론에 있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해지도록 했는가?
- 4) 어떤 국가가 바빌론을 정복했는가?
- 5) 이 나라 왕은 누구인가?
- 6) 그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는가?

- 7) 누가 다니엘을 음모했는가?
- 8) 다리우스는 어떤 법령에 서명하도록 설득되었는가?
- 9) 다니엘은 무엇을 계속했는가?
- 10) 왕은 다니엘을 잃기를 원했는가?
- 11) 왜 그는 서명했던 법령을 철회하지 못했는가?
- 12) 다니엘은 얼마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는가?
- 13) 누가 그를 구원했는가?
- 14)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5) 다리우스는 어떤 새 법을 공포했는가?

질문의 답

- 1) 예언자가 된 젊은 왕자 2) 바빌론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 3) 하느님에 신실했던 것 4) 페르시아 5) 다리우스 6) 정승
- 7) 다른 정치 지도자 8)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9) 평상시와 같이 기도함
- 10) 아니다 11) 바꿀 수 없기 때문 12) 밤새도록
- 13) 천사 14) 사자굴에 던져졌다
- 15) 모든 이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예배하라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

머리말

에즈라서 1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읽은 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둔다.

성서 본문: 즈가리야 제 4장

4장: 1.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 하는 나에게, 2.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십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일곱 개가 붙어 있었다. 3.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4.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5.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6.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6.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산아, 네 아무리 크다 하여도

즈루빠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들을 떼어 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8.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9. “즈루빠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10.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즈루빠벨이 골라 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아훼의 눈이다.” 11.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12. 또 금대롱으로 기름을 대어 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14.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해설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권의 책들인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백성들이 포로 신세에서 풀려나 귀환한 후에 예언되어 기록된 책들이다. 메대의 다리우스로부터 바빌론의 왕위를 이어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의 통치 첫 해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다. 우리는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에즈라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에즈라서는 내적인 의미는 없지만 역사적인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에즈라는 “주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되돌아가게 했는바, 고레스는 자기의 칙령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는 임무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귀환을 원치 않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예물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도록 명령했고, “금과 은과 세간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라”하고 명령하기도 했다. 고레스 역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강취했던 성전의 집기들을 그들 편에 되돌려 보냈다. 에즈라는 그 집기들의 수가 오 천 사 백 개였다고 말한다. 사만 이천 이상의 백성이 마지막 유다 왕국 이전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야킨의 손자 즈룹빠벨의 지도하에 귀환했다.

그러나 귀환한 포로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뒤 자신들의 안락을 우선시하여 성전 재건을 지연하며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후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는 백성들을 나무라도록 영감을 받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종용했다. 이는 정작 필요한 일은 흥미롭지 않아서 갖가지 이유로 지연하면서 자신의 유희를 만끽하는 데에 정신을 빠트린 우리의 삶과도 유사하다.

이제 본문의 첫 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늘 예언자들이 어떻게 영감을 받는가를 궁금해 한다. 본문은 예언자가 영감을 받는 방법들 중의 한 가지를 보여 준다. 즉, 즈가리야 ‘천사가 자기를 밤중에 깨운 다음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다른 방법들이 언급되고 있다. 예언자들에게는 꿈, 낮 동안에 환상,

환상과 더불어 들려진 음성, 천사와의 대화 또는 아무것도 없이 들려진 소리만으로도 예언이 주어졌다. 예언자들은 꿈, 환상 또는 소리 등 어느 경우에서든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본문의 환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공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있게 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두 가지 교훈들은 이내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선함을 성취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나 힘에 의해서이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꼭 마무리 지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노력으로부터 실망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신성한 섭리는 어느 곳에서든 아무리 작은 일 일지라도 역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본문의 10절로부터 배우게 된다. 계시록 5장 6절과 11장 4절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러한 환상들이 당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즈가리아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즈가리아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었는가?
- * 그는 먼저 즈루빠벨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천사는 일곱 등잔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정리

- 1)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몇 년간 포로로 있었는가?
- 2)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용했는가?
- 3) 그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4) 귀환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 5) 포로가 된 모든 유대인은 귀환을 원했는가?
- 6)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귀환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7) 왜 성전의 건설은 지연되었는가?

- 8)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무엇을 행했는가?
- 9)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
- 10) 본문의 환상은 즈가리야에게 어떻게 왔는가?
- 11) 그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2) 즈루빠벨에게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천사는 등잔이 무엇이라고 즈가리야에게 말했다는가?
- 14)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70년 2) 페르시아왕 고레스 3) 성전 재건 4) 즈루빠벨 5) 그렇지 않았다
- 6) 자원 예물과 각종 필수품의 공급 7) 자신들의 안락에 더욱 몰두해 있었다
- 8)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9) 예언자를 통해서 10) 천사로부터 11) 등잔과 두 올리브 나무
- 12)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 13) 주님의 눈 14)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나와 아주까리

머리말

요나서의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1장과 2장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요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문사항들은 흔히 세간의 질문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그를 비롯한 이들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해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나서 3, 4장

3장: 1. 야훼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 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3.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4.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5.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6.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7.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8.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8.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던 나쁜 행위를 모두 버려라. 9.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 10.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 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4장: 1.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통명스럽게 2. 야훼에게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심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
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3.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5. 요나는 시내를
빠져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불 심산이었다. 6. 그 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7.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쏴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더우기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9.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나?”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와하느냐? 11.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 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해설

우리의 성경에서 요나서는 소 예언서들 중 다섯 번째에 놓여 져 있다. 소 예언서들은 저자가
살았던 연대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그 예로 요나는 소 예언서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엘리사
이후 첫 번째 예언자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 요나가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으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에게 예언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요나의 예언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일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안에 기록되도록 선택하신 모든 것들은 전 시대의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설사 요나서가 요나라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그 안에
우리 모두를 위한 예언과 깊은 교훈들이 실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거듭 공부해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들을 열어 주신다. 우선 마태복음 12장 38-41절과

누가복음 11장 29-32절을 읽고 요나서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를 단지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마지막 3장과 4장 끝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요나서를 읽는 것을 경시해 버린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고래가 사실 주님이 요나를 삼키도록 준비하신 ‘큰 물고기’였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에서도 고래로 불리지만, 이는 그리스어의 잘못된 번역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큰 물고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는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본문을 공부하는 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지중해에 있는 먼 항구 다르시오로 가는 배를 타면 주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보내셨다. 그 배의 선원들은 누구의 과오로 인해 폭풍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진 그는 죽지 않았다. 이는 주님이 그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해두셨기 때문이다.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면서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에 반대하여 자신의 뜻을 두어서는 안 됨을 깨달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교훈을 자신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그분께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물고기는 그를 해안가에 토해 냈고, 그는 니느웨로 향했다.

니느웨는 성서에서 역사 깊고 유명한 도시인데, 그 지명은 창세기 10장 11절에서도 언급된다. 그곳은 고대 말쑤의 일부도 존재했던 것이다.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는 고고학적 발굴로 드러난 그곳의 옛터 주변의 길이가 60마일이었음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성의 중심부까지 가는데 하룻길의 도보 여행이 됐을 것임도 이해할 수 있다.

요나는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웠지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큰 적의 도시가 파괴될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짐작했고, 그 도시에 내리는 자신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혹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한다. 본문은 이러한 느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는

더 나은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바라신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벌을 내버려두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한다. 이런 연유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을 매달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예제키엘서 18장 23절의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을 되새기며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소 예언서의 첫 책과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 * 요나는 니스웨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니스웨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는가?
- * 왕은 무엇을 했는가?
- *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 주님은 니스웨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 * 요나는 니스웨가 재앙을 면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가?
- * 요나는 니스웨의 근왕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 * 주님은 그에게 그들을 주기 위해 무엇이 자라도록 하셨는가?
- * 무엇이 박멸을 파괴시켰는가?
- * 이에 대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 * 그러자 주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요나서는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 중 어디에 속하는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3)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는가?
- 4)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5) 니느웨는 어느 나라에 위치했는가?
- 6)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7) 왜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 8) 요나는 기뻐했는가?
- 9)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0) 그가 더위를 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자랐는가?
- 11) 무엇이 아주까리를 파괴시켰는가?
- 12) 그래서 요나는 분노했는가?
- 13)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소 예언서 2) 엘리사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3) 너무 거만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4) 태풍이 바다에 몰아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5) 아시리아 6)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7)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8) 아니다 9)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10) 아주까리 11) 벌레 12) 예 13)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머리말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요나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복음서에 성탄절에 관한 외부 사건이 없음을 주시하고, 본문 첫 다섯 구절들을 암기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 복음 1장

1장: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2.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8.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7.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8.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성직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20.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22.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23.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하고 대답하였다.

24.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하고 물었다. 26.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27.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실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다. 34.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35.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서 있다가 36.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과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과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43.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야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44.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45.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46.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47.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48.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하시고 5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우리는 본문에서부터 요한의 복음을 공부하게 된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였고, 주님께서 부르신

첫 네 명의 제자들 중의 한 명으로 “사랑 받은 제자”라고 불렸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주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후에 아주 위대한 환상이 주어졌는데, 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는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탄생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게 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절들과는 다르다. 새교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책들 중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인 책들을 “말씀”이라고 한다.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영감 된 책이라는 것과 유사한 표현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때로 “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들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타인과 소통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씀에는 언제나 자신의 일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수단으로 말씀을 전달하셨다.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은 우리의 이해성에 적합한 모습으로의 신성한 진리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교회 제단의 한 중앙에 언제나 말씀을 놓아두는 것이다. 또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펴놓고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닫는 이유도 이에 기인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심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다. 즉, 그분은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 그 자체이시며 완전한 지혜의 분이시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본문 1절에서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기술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말씀은 신성한 지혜 또는 신성한 진리인 것이다.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다름 아닌 신성한 지혜를 통해서였다. 신성한 지혜가 이룬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신성한 사랑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속이 지식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손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획 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다. 요한이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라고 말할 때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와 같이 인간이 글로 쓰인 말씀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말씀속의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가 인간의 형태로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성한 지혜가 인간 육신으로 내려오고,

이 육신을 통해 주님은 이미 써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에 말씀의 부분이 된 복음서들은 주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인데, 이 책들이 보존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려는 섭리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책들 속에서 계신다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앞서 마가복음 편에서 자세히 공부했다.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사항은 예수님이 세상이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7-9절에서 볼 수 있다.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신성한 진리가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그분 속에 있는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만 보여 질 수 있었는데, 이 사랑이 바로 아버지라고 불린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되는 필립보는 본문의 필립보와 동일한 인물이다.

나타나엘은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 필립보 바로 뒤에 언급되는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바르톨로메오란 “달매의 아들”이란 뜻이다.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졌는데, 이를 주목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해진 까닭은 본문 9-12절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 3장 19-21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주님을 믿는 자와 그분을 믿지 않던 자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 이들은 본문에서 주님이 부르는 이들처럼 주님께 와서 보기를 열망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꾸준히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이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1) 요나는 누구인가?

- 2)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났는가?
- 3)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4) 그는 니느웨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 5) 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 6) 요나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7) 그의 심정과 지성을 그려주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 8) 주님은 그 사건으로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 9)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 10)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 11)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 우리가 예배를 가질 때 성경을 제단위에 놓고 말씀을 열고 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 14) 본문에서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 15) 어떤 징조가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16) 본문에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되는가?
- 17) 나타나엘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예언자 2) 너무 거만하여 니느웨를 경교하지 않고 싶어서 3) 큰 물고기가 삼켰다 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5)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6) 성이 났다 7) 박 넝쿨의 이야기 8)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9) 자기들 사상으로 말씀을 덮어놓았다 10) 성서 참조 11) 신성한 진리가 글로 표현된 형체 12) 주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13)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되심 14) 세례자 요한 15) 비둘기 16)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 17) 바르톨로메오

가나에서의 기적

머리말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타 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재정리 해두어야 한다. 즉, 주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으로의 귀환, 십 이세가 되던 해 성전으로 오신 주님, 세례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적에 관한 것과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셨던 까닭을 살펴본 후 본문을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의 복음 2장 1-11절

2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8.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말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10.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11.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마태와 누가복음서에서 공부했던 주님의 초기 생애를 상기해 보자.

- *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 그분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 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 * 이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주님이 탄생하신 뒤 어떤 위험이 발생했는가?
- * 주님은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어디에 체류하셨는가?
- *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 그분은 열 두 살 되신 해에 어떤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 그분은 당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 누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도록 미리 보내셨는가?
- * 주님은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 * 왜 주님은 가장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 오셨는가?
- *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사십 일 동안 어디서 지내셨는가?
- * 거기서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매해 주님께서 공생애 이전의 준비 단계로서 가졌던 주님의 초기 생애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 주님 시대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는 성서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은 주님이 공생애를 개시하신 후 베푸신 첫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이다. 기적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한다. 앞서 우리는 구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기적들을 공부했었다. 홍해와 요르단 강이 갈라짐, 광야 여행 동안 만나를 주셨던 것, 호렘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옴 그리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 등이 그 예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 또한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추종자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혹은 주님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기적을 수행했던 이유와 오늘날 기적이 수행되는 것이 그분의 질서에 어긋나는 까닭을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단순하고 선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가까이 영접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들의 지배자들인 바리사이파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공생애가 잘 되어가기를 원치 않았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심으로 가득 찬 지배자들과 선한 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 논쟁하게 되면, 단순하고 선한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받칠 재간이 없었다. 주님의 기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증거로 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믿고자 한 이들을 확신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증거로서 기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을 통해서 주님이 하느님이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 기적을 수행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주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 예를 소경을 살펴보자. 소경이란 진리인 것을 보는 데 무능력함을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 “저 친구가 눈이 멀었으니까 저런 일을 행할 수밖에..”라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때의 소경이란 진짜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사실을 보는 것 또는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항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다. 말씀에 있는 모든 기적의 의미들은 차후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운다. 때로 우리는 그 진리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는데, 이는 본문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모습과 같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임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에 담아둔 진리를 배울 당시에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퍼 올려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 둔 진리를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꺼내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웃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노력할 때 단순한 진리였던 물은 우리 영혼을 위한 진리인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의 첫 기적은 어디서 베풀어졌는가?
- * 가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 * 누가 주님과 함께 가나로 갔는가?
- * 왜 그들은 거기로 갔는가?
- * 마리아는 어떤 일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는가?
- * 사람들은 몇 개의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 * 주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 물을 퍼내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잔치 맡은 자는 그 포도주에 관하여 뭐라고 품평했는가?

질문 정리

- 1)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2) 왜 우리는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이 되셨다”라고 부르는가?
-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5)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 6)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누가 태어났는가?
- 7) 어떤 징조가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8) 어떤 제자가 주님을 처음 뵈었는가?
- 9) 이 밖의 어떤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가?
- 10)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11)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2)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13) 나자렛은 그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4)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디서 사셨는가?
- 16) 기적이란 무엇인가?
- 17)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 18) 왜 주님은 가나로 가셨는가?
- 19)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 20) 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참조 2)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 3)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이시기 때문
- 4) 그분의 진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준다는 뜻 5)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6) 세례자 요한 7) 비둘기 8) 안드레아 9)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바르톨로메오)
- 10) 베들레헴 11) 유다 12) 나자렛 13) 갈릴래아 14) 사마리아 15) 가버나움
- 16) 주님께 의해 행해진 경이로운 것들 17) 가나 18) 혼인잔치 19) 포도주 20) 마리아

주님과 니고테모

머리말

제 1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니고테모는 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에 속했으나 주님을 믿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본문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3장 1-21절

3장: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테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테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아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테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17.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해설

구약 시대의 종교지도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두 그룹은 서기관들과(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인들이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사본을 만들고 가르치며 해석했던 자들이며, 바리사이파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종교법을 준행한다고 자부하던 계층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위선자들과 칭하셨다. 위선자란 자기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있는 척 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칠십 인으로 구성된 평의회 의원들로서 나라의 모든 종교업무를 관장했다. 이 의회 대부분의 구성원은 예수가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한 메시아는 자기들의 나라를 크고 부강하게 해주어 그들에게 큰 명예와 권력을 쥐게 해 줄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분이 유대인들에게서 불신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권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그분의 권능이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대인 의회의 부정적인 태도와 의견을 달리한 의원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었다. 이는 요한복음 7장 45-53절과 누가복음 23장 50-5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아주 정직하여 예수가 행하신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알았지만, 동료인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의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서 한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주님이 해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니고데모 역시 천국에 가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함은 우리의 바깥쪽과 안쪽의 삶, 즉 우리의 행동지침과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순수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을 의미한다.

14-15절에 있는 광야에서의 뱀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5-9절에서도 볼 수 있다. 땅을 기어 다니는 뱀이란 우리의 감각적 부분을 상징하는데, 감각적 부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세계에 접촉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바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본보기는 바로 주님이신 것이다. 주님은 이 내용을 광야에서의 뱀과 비유시켜서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14-21절의 가르침이 생략되어 있지만, 18장 37절을 읽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대로 살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 또한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거절한 까닭을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고 잘못을 행한 우리 행위의 결과가 주님으로부터가 아닌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출생을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여 마침내 그 법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될 때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의를 사랑함이 이르게 되어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 니고데모는 평생동안 주님께 신실했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19장 38-4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해 놓았는가?
- * 본문에서 누가 밤중에 주님께 왔는가?
- * 본문의 첫 구절에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 *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 *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가?
- *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1장 33절 참조)

질문 정리

- 1)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 2) 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 4) 왜 그들은 주님을 반대했는가?
- 5)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7) 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 갔는가?
- 8) 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9) 주님은 그가 어떤 질문을 원한다고 보셨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1) 주님은 “다시 태어남”에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의 구리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14) 이미 죄인으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을 두둔하려 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 아주 엄격한 종교계층, 서기관 - 성경을 베끼는 사람
- 2) 자기들 사상을 첨가시켰다 3) 위선자 4)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
- 5) 니고데모 6) 의회 의원 7)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8) 기적들
- 9) 하늘로 가는 길 10)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 12)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3)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14) 믿지 않는 것
- 15) 십중팔구 자신의 고집대로 원할 것이기 때문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

머리말

본문은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복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4장 1-42절

4장: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3.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11.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디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15.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하고 청하였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17.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26.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 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돌아 가 사람들에게 29.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30.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 들었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34.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36. 거두는 사람은 이미 샅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37.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38.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40.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41.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해설

요한복음의 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끝난 후 과월절을 기념하시 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건들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갈릴래야로 되돌아가시려고 출발하셨는데, 그 후가 바로 본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서의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야곱이 샀던 세겜 근처의 조그만 땅은 후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땅이 사마리아인에게 속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으나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에 의해 정복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아시리아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외국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친하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경멸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임과 주님을 가까이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믿음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은 열왕기하 17장 24-33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은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주님을 믿었다. 이 모습은 과거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의 이방 사람들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드러내어 뽐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어떤 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길 원하나 그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가르쳐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샘솟는 물’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물이 진리를 상징함은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지식에 갈급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가 매일 물을 필요로 하듯이 진리를 매일 필요로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천국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이 의미하는 바다. 따라서 야곱의 우물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속의 물은 주님의 진리를 담은 지식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꾸준히 이러한 지식을 배워가야만 한다. 어떤 이는 말씀의 글자에 관한 지식은 상당한 반면 실제의 삶은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성경에서 바리새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을 뽐냈으나, 자신들 속의 악을 고치려는 데에 말씀의 진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심정 속에 말씀을 담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그분의 진리를 원한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진리를 배우려고 주님께 나아오는데, 이럴 때 말씀에 관한 지식은 샘솟는 물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님께에서 진리를 꾸준히 받고 그에 순종함으로써만이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는가?
- *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어느 지역에 속했는가?
- * 나사렛과 가나는 어떤 지역에 속했는가?
- * 주님은 공생애 동안 갈릴래아의 어떤 성읍에 주로 거주하셨는가?
- *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에 어떤 지역이 놓여 있었는가?
- * 주님은 어디서 쉬기 위해서 멈추셨는가?
- * 누가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나왔는가?
- * 주님은 그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 * 왜 그 여인은 놀랐는가?
- * 주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그분께 여쭙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이 ‘샘솟는 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그 여자 자신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 여자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 주님은 하느님에 관하여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는가?
- * 주님은 그분의 양식에 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2) 중간 지역은 어디인가?
- 3) 사마리아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시고 계신가?
- 5) 그분은 어느 곳에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는가?

- 6)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구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7)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왔는가?
- 8)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왜 놀랐는가?
- 9)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0) 주님이 예언자임을 알도록 그녀에게 보여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 11)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3)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었는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2) 사마리아 3) 아시리아 왕에 의해 이주된 외국인들
- 4)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5) 야곱의 우물 6)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준 땅
- 7) 사마리아 여인 8)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중하지 않았기 때문
- 9) 10절 참조 10) 다섯 명의 남편 11) 나는 그리스도이다
- 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13) 그분의 말씀들

베짜타 못

머리말

본문 이전의 사건은 주님의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 역시 읽어두기 바란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45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첫 방문 시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말한다(2:13-16). 본문 이전의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께서 유대와 갈릴래이를 자주 오고 가셨음을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5장 1-16절

5장: 1. 얼마 뒤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 그들 중에는 삼 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으셨다. 7.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11.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12.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14.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15.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설

주님은 갈릴래아로 가셔서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후 또 다른 종교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셨는데,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기독교의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연못이 본문에 있는 못임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의심은 사라졌다. 성서사전에서는 이 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못은 양의 문과 안토니아 탑에서 과히 멀지 않은 예루살렘 베짜타 쪽에 있는 St. Anne 교회를 수리하던 1888년경 발견되었다. 제 4세기경에 지었던 성마리아 프로바디카 회당 폐허에 있는 못으로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의 모습을 퇴색된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문을 읽으면서 물이 진리의 상징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것, 즉 바다나 호수 혹은 연못 등은 우리의 기억 안에 모아져 있는 많은 진리들을 상징한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은 주님에 관련된 사항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를 가르치시는 진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다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베짜타 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은 순진과 온화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순진하고 온화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진리는 우리 기억 속에 잘 저장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의 진리를 듣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나쁜 짓인 줄 너도 잘 알잖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소리가 바로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진리를 휘젓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 또는 특사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못 속에 들어가 병을 고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은 영적인

병과 허약이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나쁜 습관을 자신보다 더 강하게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한 후 스스로를 팽개쳐 버리고 만다.

우리가 선택하고자 한 후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자신의 나쁜 점들을 고치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를 도와주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게 된다.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상기한 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배워야 할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6일 동안 해오던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세상의 삶을 위해 필요한 종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에 관해 더 배우기 위해 안식일을 보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관해 배우며 6일 동안 행하지 못했던 타인을 위한 일을 안식일에 행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는 것과 그분이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마태복음 12:12).”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은 그 사람의 육체만을 정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른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만약 극악한 사람의 신체가 이전보다 건강해지게 되면, 그는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속의 나쁜 모든 것들을 단 번에 고칠 수 없으며, 한 번에 하나씩 고쳐나갈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습관 중 하나를 제거했다할지라도 또 다른 나쁜 습관과 투쟁하기 위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어느 지역을 거치셔서 유다에서 갈릴래아로 가셔야 했는가?
- * 주님은 가시는 도중 쉬시기 위해 어디에서 멈추셨는가?
- * 누가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에 왔는가?
- *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는가?
- * 주님이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하신 물은 어떤 종류의 물인가?
- * 생명 있는 물이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녀의 신변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 주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선포하셨는가?
- * 주님은 어떤 양식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셨는가?
- *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 베짜타 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 * 천사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 *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못가에 있는 한 사람은 얼마동안 앓고 있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그가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언제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 왜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해 분노했는가?
- * 주님은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의 어느 부분인가?
- 2) 사마리아 사람의 선조는 누구인가?
- 3)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로 가시던 도중 어디서 멈추어 쉬셨는가?
- 4) 주님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왜 놀랐는가?
- 5) 주님은 그녀에게 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6)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10) 못 주위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11) 어떤 이들이 행각에서 기다렸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 13) 물이 휘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못에 있었는가?
- 15)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 16)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7)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8)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1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꾸짖었는가?
- 20) 주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종교지도자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질문의 답

- 1) 중간지역 2) 외국인 3) 야곱의 우물
- 4)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5) 4장 10절 참조
- 6) 나는 그리스도이다 7)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8)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 9) 예루살렘 10) 5 11) 병자들 12)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림
- 13) 먼저 못에 들어간 병자는 치료됨 14) 38년 15)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 16)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17)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 18) 치료되었다 19) 그는 안식일 법을 깨트렸다 20)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 21)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말

본문은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9장

9장: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아 흙을 개어서 소경을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과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8.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9.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시오”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하고 묻자 11.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3.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4.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17.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8.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21.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놓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하고 말하였다. 25.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26.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 말이요?”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27.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2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하고 말하였다. 30.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3.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34.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혼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8.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39.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해설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성막절인 수확절기였다.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분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토론도 하셨는데, 통상 있었던 바대로 그들은 그분을 파괴하려고 노력했다. 즉, 그들은 돌을 던져 그분을 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해칠 수 없었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 1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 가셨다”라고 기록된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는 우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나 불운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은 본문을 통해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질병을 앓았는데, 그 원인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에 대한 이유를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셨다. 어떤 아픔이나 불운도 주님께 의해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 단지 주님께서 그 당사자나 타인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된다고 예견하실

때만이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지체부자유자들이 타인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의 인생 상담사 또는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보게 된다.

본문에 있는 소경의 경우 주님께서 그의 고통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깊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듯이 그 역시 고쳐 주셨다. 이 반에서는 그를 고치시는 과정에서의 세세한 사항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과정을 접하면서 그 의미의 일부를 이해했으리라고 본다.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은 고침을 받은 소경과 바리사이파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후의 사건 그리고 소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구절은 성경의 내적 또는 영적인 의미가 글자 상에 드러나 있기도 하다. 상응에 대한 특별한 공부 없이도 소경이란 진리에 대해 무지함을 뜻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서기관)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소유했던 것을 무척 자랑하는 계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이 순종하고 싶지 않아 슬쩍 건너편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셨을 때 그분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똑바로 보기를 거절했다. 주님은 언제나 성경 속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전 생애와 가르침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도록 해 준 사람은 본문의 소경과 같이 진리가 보일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 순종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눈멀게 된 사람은 자신이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 안의 이기적인 것들을 질책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나쁜 점을 고치라고 충고하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스스로의 악에 관계된 진리를 환영하기 싫어서 슬며시 조는 척 눈을 내려뜨게 됨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예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보셨는가?

- * 그분의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는가?
- *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 주님은 어느 날에 소경을 치료해 주셨는가?
- * 이로 인해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 * 그들은 이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심문했는가?
- * 왜 그 사람의 부모는 주님에 관해 말하기를 주저했는가?
- * 당사자는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 * 그는 어떤 논쟁을 사용했는가?
- * 바리사파인들은 그를 어떻게 했는가?
- * 주님은 자신에 관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 * 그 다음 그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

질문 정리

- 1) 삐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2) 그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3) 누가 행각에 모여 있었는가?
- 4)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 5) 어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가?
- 6)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7)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9) 그가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0) 그 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1) 본문의 소경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가?
- 12)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13)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14) 소경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게 되었는가?
- 15) 이 기적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16) 눈을 뜨게 된 자는 이 반론으로 인해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도록 인도되었는가?
- 17) 소경의 부모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8) 그들이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적들은 주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가?
- 19) 눈뜬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20)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21) 그 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22) 눈뜬 자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응했는가?
- 23) 본문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24)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물었는가?
- 25)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루살렘 2) 5 3) 병자들 4) 치료받기 위해 5) 38년
- 6)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 8) 일어나,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라 9) 치료되었다 10)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 11) 태어날 때부터 12) 누구의 죄 탓입니까? 13) 누구 탓도 아니다
- 14)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씻음 15)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16) 예언자
- 17)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18) 그는 죄인이다 19) 32절 참조
- 20) 쫓겨났다 2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22) 그분을 경배했다
- 23) 심판을 위해 24) 우리가 눈이 멀었던 말이요? 25) 41절 참조

선한 목자

머리말

본과의 제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서 본문: 요한복음 제 10장

10장: 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판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10.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2. 목자가 아닌 샅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6. 나에게서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18.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가 있고 다시 얻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0.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21.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했다.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23.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3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31.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였다. 33.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35.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36.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39.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40.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42.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설

John Worcester의 저서 「성경 속의 동물」에서는 “동방의 목자들은 양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는데, 양들은 이내 그 이름을 배워 응답한다. 많은 목자들은 건조한 계절에 양떼를 몰고 샘가에서 정규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양떼들이 혼잡을 이루며 물을 마신다. 모든 양들이 충분히 물을 마신 후 목자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그들은 양들을 부른다. 그러면 양들은 즉시 자신들의 목자 뒤를 따르는데, 그들은 혼잡 속에서도 그들의 목자를 찾는 것에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양들의 특성 중 하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인도되며 곤경에도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떼 지어 몰리면 놀란 것처럼 보이고, 더 몰리게 되면 더욱 놀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가 앞을 향해 출발하면 따라간다. 목자에 대한 양의 애착은 양들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친구들 보다 목자를 더 따른다.”라고 설명된다. 제 10장 첫 구절에서 언급되는 ‘양 우리’란 양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말한다. 우리는 당시에도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이나 강도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특히 늑대나 야생동물로부터 양떼의 안전을 지켜야 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주님께서 당시 그분의 청종자들에게 친숙한 자연물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사실 그 말씀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이가 아기를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이것은 단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유아가 양의 특성과 상응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양의 특성이란 순진과 신뢰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의 보호와 보살핌을 위해 누군가를 찾으며 누구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 바램을 가진다. 아기는 머지않아 이런 상태를

벗어나 자라게 되고 자신의 길을 원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좀 더 진행되거나 강해지면 설사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다할지라도 자신의 주관에 관철하려고 든다. 이 후자의 특성이 전자에 비해 좋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음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 요구되는 특질은 순진과 신뢰라고 말하고 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면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여 따르듯이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먹여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안전으로부터 떨어져 배회하게 되어 이기적이고 잔인한 느낌, 즉 “늑대”들에게 유린되고 만다.

위의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구절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도둑이나 강도란 목자로부터 양들을 훔치려는 자들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하느님으로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할 때인데, 이런 사람은 도둑과 같이 행동하여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것을 훔치려 하면서 그분의 양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절한다. 샅꾼이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추종자라는 평판을 얻는데 주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순종함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자기 책무를 쉽게 내던지고 만다.

제 10장의 후반부는 주님께서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그분의 적과 가졌던 일련의 대화로 구성된다. 10장 후반부의 줄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두고 “나는 문이다” 또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보여준다. 주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신 다음 선한 사람만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신다. 이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행하려 애쓴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그분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안전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자신이 얻은 것에 싫증내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원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과일절에 어떤 고기를 먹게 되는가?

- *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누가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는가?
- *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 제 9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 이 외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가?(12절)
- * 주님은 늑대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 *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주님께 요구했는가?
- * 왜 주님은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 *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제 30절)
- * 그러자 그들은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가?
- * 왜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했다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 2) 주님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은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 4) 그분 앞에 온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은 목자 외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6) 그분이 어떻게 문이 되시는가?
- 7) 샅꾼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8) 그분이 가진 다른 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유대인은 주님에게 무엇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10) 주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 12) 주님과 아버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무엇으로 기소했는가?

14) 주님이 목자라고 불리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선한 목자 2)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 3)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4) 도둑이며 강도 5) 양 우리의 문
- 6) 우리가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 7) 양을 돌보지 않는다
- 8) 양 우리에게 있지 않다 9)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10) 그분의 일
- 11) 그분의 양이 아니므로 1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13) 하느님 모독 죄 14) 시편 23편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

머리말

본문은 미래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에 적절하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까닭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겨 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성서본문: 요한복음 11장 1-46절

11장: 1.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2. 앓고 있는 라자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3.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4.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
다.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들이 지난 뒤에야 7.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었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9.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들어 있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15.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판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18. 베다니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17.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26.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27.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 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껌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꼭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뵈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4.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 했던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38.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잡혀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0.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41.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43.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44.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더러는 바리새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해설

본문은 모두가 놀랄 만한 또 다른 기적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지상생활 말기에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본문 끝에서 과일절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의 12장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사건을 접하게 된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 마일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그곳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늘 묵으시던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집이 있던 곳이다.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누가복음 10:38-42). 요한복음 12장 1-8절을 읽어보면 본문 2절을 알 수 있다.

죽음이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잠자는 것과 같고 다만 깨어나는 세상이 예전과 다를 뿐이다. 사실 저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며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인격을 만들면서 저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유용해지기 위해서와 더욱 나은 자신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은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내일 찾아온다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려는 삶을 꾸리고 있다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종에게 말씀하시는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는 비유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 세상 삶의 끝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최적의 시기를 우리를 위해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본문에서의 라자로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4절을 참고하면 이해될 것이다. 라자로는 실제로 죽었지만, 주님은 그를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다시 깨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수행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주님은 이전에도 이미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두 번이나 살리셨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11-14절과 그 밖의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누가복음 8장 41-42절과 49-5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마리아와 마르타 역시 이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두 사건 모두 사람이 죽고 난 직후에 일어났다. 하지만 두 자매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자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다. 본문 39절은 두 자매가 생각했던 바를 알려준다. 이 기적에 따른 결과는 47-53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대성직자 나 바리사이파인들도 이

기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위상을 백성들이나 로마 통치자 앞에서 유지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도 그분을 믿는 확신을 주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라자로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누가 그와 남매지간이었는가?
- * 그들은 라자로가 앓고 있다고 누구에게 연락했는가?
- * 주님은 4절에서 그를 깨우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가?
- *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라자로는 이미 무덤에서 얼마동안 있었는가?
- * 마르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 * 마르타는 라자로가 언제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 * 마리아는 주님께로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 * 라자로는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 *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어떻게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질문 정리

- 1) 라자로는 누구인가?
- 2) 누가 그의 자매들인가?
- 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4)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언제쯤 베풀어졌는가?
- 5) 라자로가 심히 아프게 되자 주님은 즉시 베다니로 가셨는가?
- 6)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가 죽은 후 며칠이나 지났었는가?
- 7) 마르타가 주님을 뵈자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마르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라자로를 살리셨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12) 대성직자 와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 모의했는가?
- 13) 왜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처음에 나자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후에는 그가 죽었다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의 친구 2) 마르타와 마리아 3) 베다니아 4) 그분 생애의 말기
- 5) 아니다 6) 4일 7)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8) “다시 일어난다”
- 9) “마지막 날에...”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11) 돌을 치우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자로가 걸어 나왔다
- 12) 죽이려고 음모했다
- 13) 죽음을 넘어서있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주시려고
- 14) 죽음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려주일(4)

머리말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타 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의 부분을 읽고 보충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2장 12-50절

12장: 12. 명절을 지나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18.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20.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벳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27.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29.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32.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34. 그 때에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2.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43. 회당에서 쫓겨 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43.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 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해설

종려주일에서 부활절까지에 있는 성경의 내용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에 관한 것이므로, 이때까지의 그분의 삶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을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재고해 보도록 하자.

- *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 어떤 두 계층의 사람이 그분의 탄생을 말했는가?

- * 그분은 헤로데의 분노를 피해 어디로 피신하셨는가?
- * 그분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 그분은 열두 살이 되시던 해에 어디로 가셨는가?
- * 왜 그곳으로 가셨는가?
- * 공생애를 피할 때의 주님의 나이는 몇 세이셨는가?
- * 누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미리 보내셨는가?
- * 그분은 공생애 동안 어디에 본거지를 두셨는가?
- *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는가?
- * 요한복음 제 1장에서는 그분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 *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는가?
- * 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분을 미워했는가?

우리는 네 복음서 전반에 언급된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에는 상당히 익숙한 편이다. 이는 그날이 그분께서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호산나란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예수가 그들의 왕이요 장차 구세주로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사야 9장 6절, 25장 9절, 예레미야 23장 6절, 미가 5장 2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분에 관해 말해진 예언의 부분들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자. 그들이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분이 하느님 자신이었음을 인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는 부류들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되기보다는 세상적인 고통에서 구원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왕위에 올라 로마의 권력을 깨고 그들의 나라를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시켜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려주일에는 왕으로서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면서도 한 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분을 못 박은 당시의 군중들과 흡사해지는 때가 많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또는 큰 좌절로 실망하게 될 때 그런 불행들의 이유를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나는 선한 인생을 꾸리려고 몸부림쳤는데...” 또는 “나 정도만 선택도 세상이...”와 같은 꾸념들을 늘어놓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뭐 하러 예배해...”라고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드러내는 태도는 하느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력을 모두 알고 계시고, 늘 그러하듯이 그 마음들의 미래도 알고 계신다. 주님은 종려주일에 의기양양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금요일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서는 이에 대해 타 복음서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본문 23-33절까지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제 24절에 있는 밀알 하나의 비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허용하셨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밀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눈이다. 씨눈의 바깥 부분은 살아있는 밀알 씨의 눈에 자양분을 주면서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즉, 바깥 부분의 역할이 씨눈이 충분한 발달을 이룰 때까지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땅에 심어져 때가 차면 이 씨는 바깥 부분을 벗어 던진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씨눈은 영혼이며, 육체는 껍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 던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각자가 되고자 하는 특별한 씨눈이 발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선하고 유용한 식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잡초나 독 있는 식물로 될 것인가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껍질을 벗어 던진 후의 밀알은 그 상태와 본성이 바뀔 수 없다.

주님의 영혼은 하느님 자신이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그분은 당신께 닥친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정복하시면서 항상 올바른 것을 행하기를 선택하시므로써 당신의 인성을 신성한 인성으로 만드셨던 것이다. 그분은 신성한 인간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하듯이 죽음을 통과하시므로써 육체라는 껍질을 벗으셔야만 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입으셨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보이는 한 그 육체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사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형성된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내용들은 부활절 공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는 몇 년인가?
- 2)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는가?
- 3) 왜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 4) 주님은 그날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5) 왜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는가?
- 6) 사람들은 어떤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는가?
- 7)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8) 호산나란 무슨 뜻인가?
- 9) 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 10) 누가 그분의 입성을 보고 화를 냈는가?
- 11) 어떤 이방인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는가?
- 12) 어느 제자가 그들을 주님께 안내했는가?
- 13) 주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
- 14)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 16)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7)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3년 2) 축제 때문에 3) 과월절 4) 나귀 5)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 6) 종려나무 가지 7) 호산나 8) 지금 구하소서 9) 왕의 표시, 예언의 성취
- 10)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11) 그리아스인 12) 필립보와 안드레아
- 13) 밀알의 비유 14)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15) 원하지 않았기 때문
- 16) 인간의 칭찬을 사랑했기 때문 17) 신성한 진리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말

모든 생명과 선함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연관 지어 보면서 이를 확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5장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3.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4.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13.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15.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19.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좋은 그 주인보다 더 나를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일찌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25.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6.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2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목요일 저녁 사이에 대한 기록이 다섯 장이나 할애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불과 며칠 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록이 이처럼 길어진 이유는 요한이 주님의 지상생활에 대한 외부적인 사실보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깊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주간 동안에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본문은 이와 같은 깊은 교훈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환 사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 했을지도 모른다. 주님은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다. 즉,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이 짧은 문장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서 공부를 더해 갈수록 이 문구의 무게를 차츰 느끼게 될 것이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소나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해주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곧 그분의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염두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물질적인 것들을 마치 그 자체로 존재하는 듯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기도 하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각기 그분 안의 어떤 것이 바깥쪽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게 된 원인이 되는 영적이거나 신성한 것과 상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공부를 거듭하면서 이 상응에 관한 극히 일부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상응에 관한 일부를 이미 배웠다. 간단한 예로 불이 사랑에 그리고 빛이 진리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한다. 이를 상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3-9절과 18-23절을 다시 읽어 보도록 하자.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의 말씀에서 온 진리에 그리고 씨로부터 생산되는 열매는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삶을 발달시켜 이룬 선에 상응된다고 설명하셨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언급되는 식물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무화과이다. 이 세 가지의 열매는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에서 있게 되는 선과 상응한다. 즉, 우리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 평면을 말한다. 이제 이사야 5장 1-7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약성서를 주셔서 진리를 알도록 해 주셨고 알게 된 진리를 수단으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대신 이 포도밭은 “들포도”를 생산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굳히는데 성경을 사용했을 뿐 성서를 통해서 선한 인격이 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돕는 것과는 무관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였던 것이다.

이제 16절을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간혹 교인들 중에서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사회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최소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사회에서 대수롭게 않게 평가받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이 행한 선행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어 모든 선행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으로 만든 과일은 먹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더라도 본문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달린 열매같이 그 열매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하다고 은근히 추켜보려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각자 노력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자.

- * 주님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 *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계신가?

질문 정리

- 1) 본문은 주님의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4)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7)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 8)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 2) 포도나무
- 3) 가지들

- 4) “내안에 거하라” 5) 밖에 던지워... 6) 그분의 계명에 순종
 7)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8) 서로 사랑하라 9) 아니다
 10) 세상에 의해 미움 받고 박해 받는다

36

부활절 (4)

머리말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일어나신 주님을 인식한 것 그리고 토마의 의심과 그것의 해결이다. 본과에서는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20장

20장: 1.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3.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4.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 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11.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4.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여보시오,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시오.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 서서 히브리말로 “라뵤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 주셨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던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19.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단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7.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해설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까닭에 대한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당시의 어느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주님이나 천국에 관한 어떤 지식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런 사항들에 관해 배우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마치 전부인 듯 생각하게 되고, 죽음은 만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성장 후에 잘못 형성된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미래의 삶이 있음을 아는 때조차도 ‘그게 정말 사실일까?’하고 의아해하며 이 세상 삶만이 실재인 듯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당신이 죽음에 처하게 되고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해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주간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주님은 첫 이틀간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베다니아로 나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켜준 라자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주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무리가 늘어나 베다니아에서 묵으셨고, 목요일 저녁에는 과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성안에서 묵지 않으셨다. 주님은 과월절 기념식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 기도하시기 위해 겐세마네의 동산으로 나가셨다. 거기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그분은 대성직자가 보낸 무리들에게 넘겨져 체포되었다.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고, 금요일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완전히 낙망했다. 이는 그들의 희망이 그분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지 못하셨을 때 그분을 신뢰했던 것을 큰 실수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불행하게 느끼며 희망도 없었다. 우리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24:20).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지상의 왕으로서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그분 자체를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들은 지상에서 위대해지는 것과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들 역시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여 그분을 위해 여전히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들은 관습에 따라 시신을 위한 향료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녀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향료를 들고 주님께서 안장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녀들이 일요일 아침에야 비로소 무덤으로 간 까닭은 안식일에 무덤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었다. 부활절 아침 무덤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과거 주님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 준 여인인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마가복음 16:9, 누가복음 8:2).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의 육체에 속한 것을 무덤에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토마에게 손의 못 자국과 허리의 부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또한 마리아가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제자들이 방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죽음이 주님의 끝이 아닌 것 같이, 죽음은 우리의 끝도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때에 즉시 영체를 가지고 영계에서 계속 살게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붉은 영계에서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과 아주 흡사하다고 간증한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상이점이 있다. 즉, 우리는 죽을 때에 육신을 남기게 되어 더 이상 이세상과 의식을 가지고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도록 허용하실 때만 가능하게 된다. 주님 역시 마리아로부터 입으신 육신을 벗으셨지만, 그분은 그 육신을 신성한 몸으로 대체시키셨다. 이런 연유로 주님은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 특정한 사람이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형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이란 삶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군중들은 그분을 어떻게 환영했는가?
- * 군중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 그들은 뭐라고 환호했는가?

- *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메시아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 * 주님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는가?
- * 주님은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 * 부활절 아침 무덤에 처음 도착한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녀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녀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 베드로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마리아는 후에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누가 그녀에게 와서 말했는가?
- * 그녀는 처음에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 그녀는 언제 그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 * 그분은 언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 * 어떤 제자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 * 그 제자는 왜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했는가?
- *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 주님은 어떻게 믿는 것이 더 낫다고 토마에게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2) 군중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3) 군중들은 주님이 무엇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가?
- 4) 군중들이 주님이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심을 발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5) 주님은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는가?
- 7) 누가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가?
- 8) 누가 일요일 이른 아침 처음 무덤에 갔는가?
- 9) 그 여자는 왜 무덤에 갔는가?

- 10)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11)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3)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15)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 16) 이 때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 17) 토마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18)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19) 그 후 주님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0)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나귀 2) 호산나 3) 로마를 정복함 4) 그분을 거절했다 5) 금요일 6) 새 무덤에 안장되었다.
- 7) 아라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8) 막달라 여자 마리아 9) 향을 시신에 바르려고 10) 돌이 굴러져 있었다 11) 수의 12) 두 천사 13) 이름을 부르심으로 14) 아직 올라 가지지 않았기 때문
- 15) 닫혀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다 16) 토마 17) “나는 내 눈으로 보고..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 18) 다시 나타나심으로 19)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다

여자와 용

머리말

본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묘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기억해 두면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2.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 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느님께서 천 이백 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7.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9.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0.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 가 거기에서
 삼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했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 냈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
 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 가 18. 바닷가에 섰습니다.

해설

요한은 열 두 명의 사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장수했던 인물이다.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소아시아에서 발달된 일곱 기독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로마인들에 의해 기독교인이
 박해당하는 동안 소아시아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주님은
 거기서 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된 일련의 경이로운 환상들을 그에게 주셨다. 때로
 이 책은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계시록에 대한 그리스어에 해당된다.

우리는 계시록의 제 1장을 정규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제 1장이 주님에 관한 요한의
 환상뿐만 아니라 그가 본 것을 어떻게 받아써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제 2장에서부터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옥좌에 관한 환상, 봉인된 책 그리고 네 승마자와 봉인이 떼어지는 순서로 이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천사가 나타났고 각 천사가 지닌 나팔을 불었을 때 격렬한 재난이 뒤따랐다. 봉인이 떼어진다고 함은 말씀의 속뜻이 열림을 뜻한다. 나팔을 분다고 함은 말씀의 속뜻이 열려 더 깊은 진리들이 선포됨을 뜻하는데, 이 진리들은 사람들의 심정 속 깊은 곳에 감춰 두었던 악이 드러나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본문은 마지막 봉인이 떼어짐에 따라 있게 되는 환상중의 하나이다. 계시록은 첫 기독교회의 역사에 관한 예언인데, 그 교회가 이전의 교회들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어 파멸에 이르러 새교회가 지상에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관한 예언서이다. 본문의 여자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그분에 의해 건설될 새교회에 관한 그림이며, 여자의 아기는 건설될 교회 속에 있는 순수한 진리를 뜻한다. 이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차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제 9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 모두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자각하면서도 그것을 행하고자 고집한다. 이때에 우리의 양심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호소한다. 반면에 우리 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만한 일은 세상사에 비교하면 어린아이의 장난에도 미치지 않아” 또는 “우리 부모는 역시 구시대 사람이니까.”라고 또 다른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속의 어떤 소리에 솔깃하여 행동선상에 잘못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나쁜 습관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그것이 나쁘다고 자각하고 극복하려고 할지라도 이미 때가 늦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일은 종류나 형태만 달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주체가 바로 본문에서의 큰 붉은 용이다.

요한이 환상에서 본 새교회는 1757년 주님이 재림을 이루신 때부터 지상에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밝히셨던 진리들이 우리들에게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 곧 늪은 뱀, 악마 혹은 사탄이라 불리는 것들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이해성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해치우려고 발버둥 친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거짓된 논쟁들은 15절에서 용이 토해낸 “강물(flood)”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러자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마셔버렸 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밝히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응용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이해성은 이기적인 추론들이 거짓되었음을 명백히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그것들을 쉽게 거절하여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한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 여자의 발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 그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는가?
- *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 용은 몇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 * 뿔은 몇 개였는가?
- * 그 용은 꼬리로 무엇을 했는가?
- * 용은 무엇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 *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 * 누가 용과 싸웠는가?
- *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 * 무엇이 그녀를 돕기 위해 주어졌는가?
- * 땅은 그녀를 어떻게 도왔는가?

질문 정리

- 1) 요한은 누구인가?
- 2)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어디로 유배되었는가?
- 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4)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5) 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 6) 첫 기독교회에 자라난 악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7)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8) 이 환상의 일부를 설명해보자.
- 9) 여인과 그 아이를 위협하기 위해 무엇이 나타났는가?
- 10)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 아기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12) 누가 용에 대하여 싸웠는가?
- 13) 여인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질문의 답

- 1) 가장 사랑 받은 사도 2) 파트모스섬 3) 환상 4) 영화 되신 주님
- 5) 재림 6) 봉인이 떼어짐으로 7) 태양을 입은 여자
- 8) 달을 밟고,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9) 용
- 10) 일곱 머리, 열 빨, 일곱 왕관 11) 천국으로 들려올라 갔다 12) 미가엘과 천사들
- 13)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갔다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

머리말

본문은 제 12장과 연관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의 악과 이해성 속의 거짓이 우리 안과 세상에서 발달하려는 교회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13장: 1.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 갔습니다. 4.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5.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10.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12.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육백 육십육입니다.

19장: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18.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19.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향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해설

본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본과에서는 용과 두 짐승의 상호관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우리는 여자란 새교회를, 그녀의 사내아이란 새교회의 진정한 가르침을 그리고 용이란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를 파괴하려드는 이기적인 추론임을 살펴보았다.

용으로 상징되는 이기적인 추론에 항상 뒤따르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다. 이것이 바로 짐승들로 상징된다. 첫 짐승은 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성경에서 표범이란 남이 눈치 채기 전에 파괴해버리는 모습을 의미하고, 곰이란 바깥 행동 면에서 거칠게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짐승이란 자신 혹은 타인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각자의 속에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짐승이 가진 머리들 중 하나가 생사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상을 입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욕심들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둘째 짐승은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양이란 순진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째 짐승의 모습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 중 겉으로 순진하게 나타나 그 욕심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18절에서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보라”라고 말씀해두셨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현명하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몰입하도록 하는 자기변명들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조차도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상적인 추론의 세력이 현 세상에서 막강하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짐승의 숫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과의 진실”이신 분이다. 또한 그분은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로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짐승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이해성은 용의 논쟁에 쉽게 솔깃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진리를 배우며 그에 따라 삶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게 되어 실패 없는 승리만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제 12장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무엇이 여자와 아들을 위협했는가?
- * 그 아들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누가 용에 맞서 싸웠는가?
- * 용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 여인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용이 토해낸 홍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 * 우리 속의 용이란 무엇인가?
- *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짐승은 용과 어떻게 모습이 같았는가?
- * 짐승은 어떤 동물들의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가?
- * 용은 짐승을 어떻게 도왔는가?
- * 첫 짐승과 둘째 짐승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이 짐승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표시되었는가?
- * 제 19장에서 하늘이 열릴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처음에 승마자는 무엇이라고 불렸는가?
- * 둘째로 어떤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 * 셋째 이름은 무엇인가?
- * 승마자는 누구인가?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나님에게 들러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 20) 불못에 던져졌다

요한 환상의 끝

머리말

성경을 마감하는 구절에 다음의 간단명료한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 여부가 자유로운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총명이나 의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적인 행복에의 길이다. 다섯째,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사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 으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8-21절

22장: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돌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빼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해설

본문은 성경의 끝인 요한의 환상 끝부분에 이르고 있다. 앞서 우리는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공부했다. 만약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아름다운 환상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고, 그곳은 새교회 이름의 근원이 되며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이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왔고,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부분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도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예루살렘의 모습과 에덴의 동산의 모습을 우리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그대로의 새교회에 대한 묘사이다. 그 성내의 강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뜻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란 갖가지 종류의 순수한 선함을 의미한다. 지상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 기꺼이 그 진리대로 산다면, 이 성은 이내 우리에게로 내려와 진다. 그래서 이 성은 지상의 진정한 새교회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교회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천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 주었다. 제 8절은 천사들이 한 때 지상의 사람들이었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말씀의 구절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구절은 우리가 그들처럼 산다면 천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은 봉인되어 온 말씀의 책을 이제는 봉인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누구든지 진실로 진리를 원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심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곧 천국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여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반드시 이 지상에서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사후에 우리의 근본적인 인격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수차례 일컬으셨다. 알파와 오메가란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 철자로서, “시작과 끝 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이다. 창세기의 첫 구절의 네 단어를 살펴본 후 성경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예수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요, 처음과 마지막 이신 것이다.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계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께 요구했다라면 생명의 물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상기해보자. 신성한 진리는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제공되며, 누구든지 그것을 찾아서 얻으면 천국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의 계명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혹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내는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들은 모두 불행한 결과 곧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랑과 지혜로서, 그분의 방법만이 언제나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앞서 성경의 첫 절을 공부했으므로, 성경의 마지막 절도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은총이란 “받아들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도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제 8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 * 천사는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 * 누가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가?
- * 누가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가?
- * 제 18-19절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언급 된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 2) 그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3) 알과와 오메가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누가 생명나무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 5) 주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 6)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신가?
- 7) 그분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항은 무엇인가?
- 8)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자기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2) 하느님께 경배하라
- 3) 처음과 마지막 4)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 5) 예수 그리스도
- 6) 나에게 오라 7)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떼어버리는 것
- 8) 거룩한 성 9)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선택을 하기 때문

새교회 날(2)

머리말

본과는 매해 6월 셋째 주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새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1-12절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짚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미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인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해설

앞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성이 천국적인 상태에 관한 묘사임을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서 주시는 빛으로 밝혀주신 진리를 공부하여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천국적인 상태에서 살게 된다. 우리는 매해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칭하며 그 날을 기념한다. 이는 1770년 6월 19일 새 기독교 천국의 건설이 영계에서 선포되었고, 그 천국으로부터 지상에도 새 교회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스웨덴북이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첫 다섯 구절 안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우리의 유아기 시절에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지식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지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적절한 시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기 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지식들을 매해 배워나가게 된다. 모든 이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인류 전체의 성장역사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창조될 당시의 인류는 아주 단순하고 순진했는데, 그들은 마치 오늘날의 유아와 같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모두 주셨다. 그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 즉 더욱 복잡한 종류의 가르침들까지 주셨다. 오늘날 역시 이와 같아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하는 이들 곧 그분이 옳다고 하신 것들을 행하려는 이들은 더욱 슬기로워지는 반면에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도 불행해지게 된다.

주님은 세상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직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물리적 세계에 관한 사항들을 알며 늘 배워간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들로 인해 교만해져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들을 가진 자들의 논쟁을 이겨낼 만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자 다시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육에 의해서가 아닌 그분께서 선택한 종 곧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술을 수단으로 하여 말씀의 내적 의미를 보여 주심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책임을 주신 것이다. 즉, 새로운 이해의 빛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그분께 순종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타인에게도 전하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

이제 본문을 다시 읽고, 이 새로운 빛 속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서 공부한 바대로 거룩한 성은 지상에 건설되기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리에 진실로 소속된 이들은 진정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2절). 주님은 이 교회 중심에 계신다(3절). 우리는 주님이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4-7절).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살게 된다(8절). 그 도성의 성벽은 말씀의 글자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시작 초부터 인간에게 주신 법인 십계명을 뜻하며, 지금 우리는 새 빛 속에서 이 계명을 이해하여 주님사랑에 의거하여 순종하게 된다(9-12절).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 * 누가 거룩한 성의 환상을 가졌는가?
- * 거룩한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도성에는 얼마나 많은 문이 있었는가?
- * 문에는 뭐라고 써어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가?
- 2) 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르는가?
- 3)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 4) 누가 거룩한 성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가?
- 5) 성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6) 성벽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7) 단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 8) 왜 세상은 마지막 계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
- 9) 세상의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 10)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 11) 왜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가?
- 12) 주님이 악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큰 시험은 무엇인가?
- 14)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 날 2) 순정기독교 791항 참조 3)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 4) 사도 요한 5) 교리 6) 말씀 글자 7) 평화의 장소
- 8)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9) 주님에 관한 지식
- 10)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심으로
- 11) 주님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므로
- 12)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시기 위해 필요하므로 13) 자기 총명의 자랑
- 14) 말씀과 스웨덴복음의 저서를 수단으로 이웃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도움